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敎授 崔 智 娜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xpressions of Art Make-up Applying the Object

2003年 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 션 藝 術 學 科
扮 裝 藝 術 學 專 攻
金 英 淑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敎授 崔 智 娜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xpressions of Art Make-up Applying the Object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 션 藝 術 學 科
扮 裝 藝 術 學 專 攻
金 英 淑

金英淑의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3年　　月

審査 委員長_____印

審 査 委 員_____印

審 査 委 員_____印

국문초록

현대의 미술은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메이크업 또한 다양한 미술활동에 결합되어 새로운 예술 활동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 가운데 오브제는 창조적인 실험정신과 자유로운 조형성을 형성하여 기법이나 재료의 제한이 만들어낸 장르의 구분을 없애고 일상생활과 예술과의 경계를 무너뜨린 새로운 조형개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메이크업에도 적용되어 디자인 개발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트 메이크업과 현대 미술의 주요 흐름인 오브제를 결합시켜 오브제 양식의 아트 메이크업을 연구하였으며, 현대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오브제 개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메이크업 분야 중에서도 다양한 표현과 재료의 도입으로 메이크업의 영역을 넓혀준 아트 메이크업에서의 오브제를 중심으로 오브제가 현대 메이크업에 미친 영향과 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오브제의 소재와 기법을 이용하여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을 작품제작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아트 메이크업과 오브제에 대한 기본적 이론을 검토하고, 개성적인 아트 메이크업 이미지연출을 위하여 오브제를 응용한 메이크업 디자인의 또 다른 과정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아트 메이크업에 대한 개념과 오브제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제작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에 표현되고 있는 아트 메이크업은 자기 의식과 개성의 표현을 중시하고 그 표현기법에서도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오브제의 개념은 입체주의 작가들에 의해 표현과 실체를 탐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어 다다이즘에 와서는 기존의 가치나 전통에 대한 부정으로 선택되어 본격화되었으며 초현실주의에 의해 그 영역이 인간의 의식에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팝아트에서는 일상적인 사물을 오브제로 도입하여 예술과 생활과의 거리를 좁혀 나갔으며 계속해서 그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메이크업에서의 오브제는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으며, 아트 메이크업에 의한 새로운 형식에 대한 모색은 메이크업 디자인의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현대 아트 메이크업 작가들에 의해 오브제 작품들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아트 메이크업에 표현된 오브제의 소재는 종이, 깃털, 반짝이, 레이스, 비즈, 머드 등 인체에 사용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소재에도 제한이 없이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조형적이고 창의적인 표현효과를 주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소재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며 독특하고 다양한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작품제작을 통해 일상 소재의 오브제를 아트 메이크업에 응용하여 재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소재개발과 함께 창의적이고 풍부한 디자인을 전개 할 수 있었고 아트 메이크업 또한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소재개발과 함께 오브제 개념은 아트 메이크업에 응용되어 예술적 표현력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Ⅱ. 아트 메이크업의 이론적 고찰 5

1. 아트 메이크업의 개념 5

2. 아트 메이크업의 역사 7

3. 아트 메이크업의 특성 및 표현방법 13

4. 아트 메이크업의 유형 17

Ⅲ.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 연구 27

1. 오브제의 개념과 유형 27

2. 오브제와 아트 메이크업 33

3. 아트 메이크업에 응용된 오브제의 소재 분석 34

Ⅳ.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 연구 55

1. 작품제작의도 55

2. 제작방법 56

3.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의 표현 58

Ⅴ. 결 론 73

참 고 문 헌 76

ABSTRACT 78

그림 목차

<그림 1> 사하라의 동굴벽화 23
<그림 2> 회화적 장식 23
<그림 3> 독일의 베라 렌돌프, 자연과 인체 23
<그림 4> 세르쥬 르땅, "마법사들" 24
<그림 5> 메이크업의 기본 요소인 점 24
<그림 6> Thomas Oswald, 바디 페인팅 24
<그림 7> Julie Pitts, Poison Ivy 24
<그림 8> 선이 면으로 이행하는 단계적 서열 25
<그림 9> 환타지 메이크업 1967 25
<그림 10> 환타지 메이크업 본인 작품 25
<그림 11> 페이스 페인팅 본인 작품 25
<그림 12> Kikuyu, Body Painting 26
<그림 13> 신분표시 장식 26
<그림 14> 신분표시의 메이크업 26
<그림 15> 다양한 문양의 바디 페인팅 표현 26
<그림 16> 꽃잎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38
<그림 17> 꽃과 잎사귀 오브제 아트 메이크업 38
<그림 18> 깃털 오브제 메이크업 38
<그림 19> 깃털을 응용한 오브제 메이크업 38
<그림 20> 머드 오브제 메이크업 39
<그림 21> 석고를 이용한 오브제메이크업 39
<그림 22> 석고 오브제 메이크업 39
<그림 23> 레이스 오브제 46

<그림 24> 레이스 오브제 아트 메이크업 46
<그림 25> 망사 오브제 메이크업 46
<그림 26> 망사 오브제 메이크업 46
<그림 27> 레이스 오브제 메이크업 47
<그림 28> 비즈 오브제 메이크업 47
<그림 29> 비즈 오브제 메이크업 48
<그림 30> 반짝이를 이용한 메이크업 1 48
<그림 31> 반짝이를 이용한 메이크업 2 48
<그림 32> 인조보석 49
<그림 33> 인조보석 49
<그림 34> 스팡클 49
<그림 35> 패브릭 오브제 메이크업 50
<그림 36> 패브릭 오브제 메이크업 50
<그림 37> 패브릭을 응용한 오브제 메이크업 50
<그림 38> 패브릭을 응용한 오브제 메이크업 50
<그림 39> 종이 오브제 메이크업 51
<그림 40> 종이 오브제 메이크업 51
<그림 41> 종이오브제 메이크업 51
<그림 42> 종이 오브제메이크업2 51
<그림 43> 종이(꽃모양) 오브제 메이크업 52
<그림 44> 종이(나비) 오브제메이크업 52
<그림 45> 철사를 이용한 아트 메이크업 1 52
<그림 46> 철사를 이용한 아트 메이크업 2 52
<그림 47> 비닐(출처: vogue make up) 53
<그림 48> 패브릭+종이 53

<그림 49> 인공(빵) 53
<그림 50> 각설탕 54
<그림 51> 아이스 파우더 54
<그림 52> 모형 거미 54

표 목 차

<표 1> 원시 바디 페인팅의 목적 21

작품 목차

<작품 Ⅰ> 깃털을 응용한 작품 60
<작품 Ⅱ> 레이스를 응용한 작품 62
<작품 Ⅲ> 인조보석을 응용한 작품 64
<작품 Ⅳ> 패브릭을 응용한 작품 66
<작품 Ⅴ> 부직포를 응용한 작품 68
<작품 Ⅵ> 털실을 응용한 작품 70
<작품 Ⅶ> 스트로우를 응용한 작품 72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메이크업은 원시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와 문화권내에서 통용되는 미의 개념과 기준 아래, 인간의 본능적인 미적 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TV, 영화, 온라인 영상과 화상 통신 등 영상 매체의 발달로 인해 메이크업은 자기만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특히 아트 메이크업은 사람의 얼굴에 색채와 문양을 이용하여 표현함으로써 복합적인 메이크업의 디자인 요소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전달효과를 유발하도록 한다. 이러한 아트 메이크업은 패션쇼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과거에는 패션과 조화를 이루는 뷰티 메이크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패션쇼에서는 창의적인 아트 메이크업이 얼굴뿐만 아니라, 신체 부위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적용영역도 패션쇼뿐만 아니라 공연 등 여러 무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유형의 한 형태인 환타지 메이크업이나 바디 페인팅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디자인의 표현 방법에 따라, 끊임없는 변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기도하다.

따라서 메이크업 디자이너들에게 새롭고 창의적인 시각과 다양한 소재의 개발을 필요로 하게 하였으며 디자이너들의 이러한 시도는 미술사조에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현대의 미술은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메이크업 또한 다양한 미술활동에 결합되어 새로운 예술 활동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 가운데 오브제는 창조적인 실험정신과 자유로운 조형성을 형성하여 기법이나 재료의 제한이 만들어낸 장르의 구분을 없애고 일상생활과 예술과의 경계를 무너뜨린 새로운 조형개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대 메이크업에 적용되어 디자인 개발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트 메이크업과 현대 미술의 주요 흐름인 오브제를 결합시켜 오브제 양식의 아트 메이크업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현대 미술의 한 흐름으로 등장하여 미술분야 외에도 건축, 패션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친 오브제 개념을 통해서 패션 분야의 경우, 조형적 오브제는 재료의 제한을 없애고 소재 확장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이미지 표상의 오브제는 새로운 사고의 발상과 인간 내면의 미의식을 표현하며 초현실주의와 팝아트를 중심으로 패션에 반영되고 있으며 기존의 아트 메이크업 양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오브제 개념을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메이크업 분야 중에서도 다양한 표현과 재료의 도입으로 메이크업의 영역을 넓혀준 아트 메이크업에서의 오브제를 중심으로 오브제가 현대 메이크업에 미친 영향과 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제작을 통하여 다양한 소재의 표현기법 및 조형적 이미지의 아트 메이크업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아트 메이크업과 오브제에 대한 기본적 이론을 검토하고, 개성적인 아트 메이크업 이미지연출을 위하여 차별화 된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

업 디자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트 메이크업과 오브제에 관련한 국내외 서적과 화보,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고찰하였으며, 현대 메이크업에 활용된 오브제양식의 작품 분석을 위해 해외 콜렉션지와 패션 관련 서적 및 사진 자료를 참고하였다.

선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오브제 미술의 특성을 살려 미적 의지를 표현하는 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실물 작품으로 제작하여 다양한 양식과 기법으로 전개된 오브제 중 새로운 이미지의 소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일상생활의 오브제 소재를 선택하여 조형적인 아트 메이크업을 제작함으로써 현대 메이크업 디자인의 표현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에 응용된 소재를 재구성하여 아트 메이크업에서의 인체적용 영역의 범위를 넓혀 독창적인 아트 메이크업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대 미술에 나타나는 오브제의 여러 유형 중 조형적 오브제를 중심으로 메이크업에 나타나는 오브제 양식을 살펴보았다. 즉, 재료의 제한을 없애고 소재 확장의 계기를 만들어 준 오브제를 토대로 아트 메이크업에 응용된 오브제의 다양한 재료를 분석하였다.

이로써, 현대미술에 큰 영향을 끼친 오브제의 조형적 요소 분석 결과를, 아트 메이크업에 응용하고자하였으며, 오브제 특성을 분석하고 아트 메이크업의 적용 가능성과 응용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폭넓게는 영상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오브제별로 고유한 스타일 제시와 아트 메이크업의 개성미를 부각시키는 방법과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오브제 아트 메이크업의 특징과 그 연출 방법의 시각적, 심리적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아트 메이크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표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아트 메이크업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아트 메이크업의 개념 및 역사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또한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유형을 분류하였다.

제3장에서는 오브제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오브제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작품분석을 통하여 아트 메이크업에 응용된 오브제의 소재와 기법을 자연소재와 인공소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오브제를 응용한 실제작품제작을 통하여 작품제작의도와 방법을 검토하고 작품 7점을 제시하였다.

아트 메이크업작품에 응용된 소재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레이스, 깃털, 스트로우, 인조보석, 부직포, 비닐소재의 패브릭, 털실 등을 재구성하여 응용함으로써 다양한 소재개발과 함께 아트 메이크업의 무한한 표현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와 향후과제를 언급하였다.

Ⅱ. 아트 메이크업의 이론적 고찰

1. 아트 메이크업의 개념

메이크업(Make-up)은 페인팅(Painting), 토일렛(Toilet), 드레싱(Dressing) 또는 프랑스어의 마뀌아쥬(Maquillage)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현재 보통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화장 형태는 20세기 미국의 할리우드 전성기 때 맥스 팩터(Max Factor)가 대중화시켰다고 한다.

메이크업(특히 Beauty Make-up)은 우리말로는 화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은 돋보이도록 하고, 약점이나 추한 부분은 수정하거나 위장하는 수단이 된다. 화장이란 말은 개화 이후부터 널리 사용된 외래어로서 가화(假化) · 가식(假飾) · 꾸밈 등의 뜻을 지닌다.[1)]

아트 메이크업이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인간의 육체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구현하는 메이크업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

1) 화장에 해당하는 순수한 한국어는 장식(粧飾/裝飾) · 단장(端粧/丹粧) · 야용(冶容)이고, 화장품은 장식품(粧飾品) · 장렴(粧奩) · 장구(粧具)였다. 이처럼 다양한 표현이 있는 것은 의미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이다. 얼굴화장만을 가리킬 때는 야용, 몸단장에까지 이르면 단장, 일반적인 화장일 때는 장식(粧飾)이었고, 장신구까지 치장한 경우에는 장식(裝飾)이었다. 특히 옷차림마저 화사하게 하였을 때는 성장(盛裝)이라고 표현하였다. 화장의 농도에 따라서도 다르게 표현했는데, 엷은 화장인 경우는 담장(淡粧)이라 하였고, 짙은 색조화장인 경우는 농장(濃粧) · 단장(丹粧) 또는 성장(盛粧)이라고 구분하였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이러한 아트 메이크업이 현대에 와서 인간신체의 일부분에 상을 부여함으로써 얻어지는 외형적 아름다움의 추구행위뿐만 아니라, 미의식에 자아를 하나의 개성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메이크업의 기원은 미적·성적 본능의 만족 수단, 신체의 보호 또는 보존을 위한 실용적 수단이라는 학설이 있다.[3)]

피부의 외관이나 색을 바꾸고 싶다는 욕망은 원시시대부터 내려온 인간의 사회적 욕구의 표출로서 피부에 색을 칠하거나 문신을 넣기도 하고 형태를 바꾸기도 해 왔다.

메이크업은 일반적인 뷰티메이크업, 캐릭터에 맞게 표현하는 분장, 그리고 예술성을 중시하는 아트 메이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아트 메이크업은 모드메이크업, 환타지메이크업, 바디메이크업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모두 작가의 개성에 따라 표현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며 예술성을 가장 중시한다.[4)]

아트 메이크업은 인간의 육체를 재조형한 예술로서 새로운 현상,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움의 추구, 새로운 현실성 등을 알리는 것이며 특별한 회화기법으로 인체에 디자인한 것이다.[5)]

또한 원래의 구조의 형태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시점에서 보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형태로 디자인한다. 이러한 디자인의 계획은 피카소의

---

2) 강병석, "토탈패션으로서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1994, p. 7.
3)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도서출판답게, 1998, p. 15.
4) 최지나, "꽃 이미지의 아트 메이크업", 「한국인체예술학회지」, 창간호, 2000, vol. 1, p. 143.
5) Siegmund Verlag, MODERN MASK DESIGN(Hearusgeder), 1986

큐비즘적 화풍의 영감에 의한 창작과 같은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것이다.[6] 현대에 표현되고 있는 아트 메이크업의 경향을 보면 단순한 인간의 모습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욕망, 인간이 아닌 동물, 물체가 되려는 욕망, 상징이 되려는 욕망, 시간에 순응하고 시간의 침식과 화해하려는, 또한 무엇인가 스스로 내면에 그려 넣고, 가라앉히고, 흡수시키려는 자신의 이미지와 경쟁하려는 이미지를 들 수 있다. 즉, 가공적인 예술형태의 욕망에서 비롯된다.

또한 신년파티 또는 참회의 화요일(Mardi Gras)축제 때 도를 지나칠 정도로 사치스러운 가장 무도회처럼 변장하는 색다른 이미지를 원할 때 잠재적인 강한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적용되는 아티스트의 행위 역시 아트 메이크업이다.[7]

2. 아트 메이크업의 역사

인간이 언제부터 화장을 시작했는지를 밝히는 일은 고대와 현대의 화장 형태가 다른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극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통설(通說)에 의하면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필요성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신분·계급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태고적부터 치장했다는 이유를 들어 학자들은 화장의 기원을 인류의 생존과 같은 시기라고 가정(假定)한다.

---

6) Susan Sontag, Veruschka: trasn-figurations(London: Thames and Hudson, 1986), p.148.

7) Diana Lewis Jewell, Making up by Rex(New York: Clarkson Potter, 1986), p. 144.

즉,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아트 메이크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메이크업은 얼굴에 그리거나 칠하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고려시대의 벽화에서도 가죽이나 뼈, 동물 꼬리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장식을 보더라도 아트 메이크업이 얼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최초로 인간이 살기 시작되면서 인간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나무, 그리고 열매, 씨앗, 뿌리 등으로 천연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얼굴이나 몸에 칠하여 자기 모습을 변장하였다. 이 때의 위장은 수많은 적들이나 동물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자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적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변장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위엄이나 용맹성을 표현하였고 여성인 경우에는 색료나 향료를 이용하여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 몸에 바르기 시작한 것이 아트 메이크업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1) 원시 아트 메이크업

원시인들은 언제부터 자기 신체에 페인팅 함으로써 창조적 충동을 표현하고 색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색의 마력에 유혹되어 자기 나름대로 변형시키고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원초적 충동을 따랐다고 한다.[8]

이에 따라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석기시대에서는 동굴 벽화와 붉은 황토 및 황토 무덤 도구 위에 놓여있는 유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페인팅된 조상은 구석기 시대 매장터

8) 노희영, "현대 아트 메이크업의 회화적 경향과 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18.

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구석기 시대에 다채로운 마스크와 신체의 외형 변화 효과는 일상생활로부터 애니미즘 종교의 주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신에게 좀더 가까이 가도록 했던 것이다. 색의 마력은 사냥을 위해, 원초적 자연 상태의 기초적이고 주술적인 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산 숭배의 종교적 애로티시즘을 위하여, 인간·동물과 식물을 자연계 및 우주와 결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신석기 시대 인간들은 사냥과 채집으로부터 농업과 목축으로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들은 자신의 신체를 변화시키는 것과 다른 혈연관계와 구별하는 것과 종교적 주술을 위한 것 등 모든 것이 구석기보다 세련되어졌다.

미네랄 안료와 야채 컬러링으로 된 신석기 시대의 신체와 얼굴 페인팅 관습은 작은 종교적 인물 및 제물 등에도 반영되었다.<그림 1>

2) 고대 아트 메이크업

이 시대의 아트 메이크업은 다른 예술적 표현들이 우발적인 동기에 의한 행위였던 것에 반해 종교나 사회적, 정치적 개념을 가진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분리시켜 이해해서는 안되며 타고난 '상상력의 세계'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메이크업, 즉 페인팅에 사용된 색들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의 중심세계와 연관이 있다는 개념에서 나오며 신과 성직자들도 그것을 통해서 영혼의 세계가 조직되고 표현된다고 생각하였다.

고대인들은 페인팅을 통해 현세와 내세가 서로 왕래한다고 믿었고 모든 현상은 인간이 노력하여 얻어 낼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열려있다고 믿

었다. 춤, 노래, 육체적 장식과 색칠하나가 곧 의학이며 수호, 영혼, 은총을 얻기 위한 행위이자, 믿음이라 생각했다. 그들의 페인팅은 믿을 수 없는 당당함과 자연으로부터 가져온 다양한 형태를 혼합하며, 추상적인 채색을 취하는 메이크업으로 물질세계와 그 외의 모든 것을 연합하는 힘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매개체였다.

이러한 고대의 아트 메이크업 중 문명적으로 커다란 발전을 했으며, 예술적 가치기여도가 가장 컸던 시대는 고대 이집트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집트 시대의 여성들은 스스로 꾸미기를 즐겼고, 최종의 유형은 메이크업인데 여성의 경우 이는 아주 정교했다.

여성의 경우 특히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미의 추구는 절대적 염원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BC 5세기경에 화장품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물질과 어패류나 돌가루 등의 광물질에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화장품이 발전하면서 초기 이집트 왕조 전기시대부터 화장품의 용기와 도구 또한 나오게 되었고 기술의 발달과 화장품의 질과 양이 양면에 걸쳐 개선되어갔다.

변장에서 분장[9]으로 발전하면서 고대 희랍시대에서는 자연광선 아래에서 가면극이 행해졌다. 그러나 실외에서 실내로 옮겨짐에 따라 가면극이 분장의 수단이 될 수 없었다. 가면극이 가지고 있는 단점중의 하나가 얼굴의 변화인 희, 노, 애, 락 등이 한정되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관객들 또한 호응도가 점차 떨어지고 야외에서 행해진 노천극은 시간이나 날씨 등 자연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점차 실

9) 여기에서 '분장'의 의미는 일반적 화장의 의미를 제외한 모든 메이크업 분야를 말한다.

내로 이동하게 되었다. BC 18세기 경 실내로 이동되면서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BC 12세기경 가루 상태인 안료를 물에 녹여서 죽처럼 만들어 손가락을 이용해서 배우의 얼굴에 직접 그리기 시작했다.

이집트인들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여겼으며 화장은 주로 여자들 사이에서 발달하였고, 향이나 몰약을 사용했으며 많은 노출로 인한 피부 마사지를 했다.

또한 눈과 눈썹을 길게 보이게 하기 위해 화장먹을 칠했으며 초록이나 하늘색 아이섀도우를 했다. 또한 이집트인들은 흰색의 화운데이션을 바르고, 시나이반도에서 나는 공작석으로부터 녹청색의 화장료를 얻어 눈 화장을 했다.[10]

크레오파트라 여왕시대의 화장에서는 입술화장의 기록이 있다. 또한 입자가 매우 고운 적토를 사용하여 입술과 뺨을 붉게 표현하였다.

고대인들의 모든 예술적 표현의 양식 중 아트 메이크업은 특별히 정의하기가 어렵고, 고대인들의 거의 제한되어 있지 않은 아트 메이크업의 다양함은 20세기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예술형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3) 근대의 아트 메이크업

근대에 있어 아트 메이크업은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신분에는 나이를 구별하는 나이집단 표시와 부족을 구별하는 부족집단의 표시, 직업을 나타내는 지위의 표시 등 다양했다. 그것은 페인팅에 나타나는 색으

---

10) 유송옥, "고대 이집트 패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2, p. 262.

로 구별하기도 하고 선의 형태로 구별하기도 하는데 페인팅에 나타나는 2개 이상의 색은 그 동기와 해석을 애매하게 할 뿐 아니라 그것들의 다양한 암시와 깊은 의미를 준다.

근대인들은 자신의 창조성과 예술적 자질에 대한 매개로써 자신의 피부를 이용하는데 나무 조각가들처럼 피부의 표피를 자르기도 하고 조각가 작품을 깍아 내는 것처럼 피부의 본성을 바꾸는 것으로써 예술 표현을 한다.

장식된 피부는 몸을 생동감 있는 조각품으로 바꾸어 놓고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끌어 올려 놓는다. 그들이 표현하는 육체의 의식적인 디자인은 비정형화된 자연스러움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데 인간다운 문화의 표현으로써 확실히 특색을 이룬다. 이 예술의 규칙은 시대나 지역의 성격에 의해 바뀌지거나 보태지기도 한다. <그림 2>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지역의 Bororo 부족. 축제기간 동안 자신의 미를 드러내고자 페인팅한 것이다.

4) 현대의 아트 메이크업

현대에 표현되고 있는 아트 메이크업의 경향을 보면 단순한 인간의 모습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욕망(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물체가 되려는 욕망, 상징이 되려는 욕망)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는 시간에 순응하고 시간의 침식과 화해하려는 또한 무엇인가 스스로 내면에 그려 넣고, 가라앉히고 흡수시키려는 자신의 이미지와 경쟁하려는 이미지이다. 즉, 가공적인 예술형태의 욕망에서 아트 메이크업은 비롯된다.[11]

현대 메이크업은 사이버적인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기술과 재료의 발달

11) 김희정, "초현실주의 아트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 60.

로 인하여 특수효과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도 보여지고 있다. 작품들을 살펴보면 인체에 행해지는 메이크업으로 색이나 표현, 주제, 기법, 재료 등에 구속을 받지 않고 단지 예술적 이미지만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많은 예술사조와 함께 하고 있으며 특히 초현실주의적 경향의 작품이 많음을 알 수 있다.

3. 아트 메이크업의 특성 및 표현방법

신체에 직접 행해지는 화장은 패션과 함께 인간의 근본적인 미적 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인간생활의 시작과 함께 발생하여 점차 장식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면서 발전해 왔다. 현대에 와서 화장품 관련 기술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화장은 일반인에게도 널리 보편화되고 패션과 화장, 헤어스타일, 액세서리와 함께 토탈 패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오염된 자연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가 요구됨에 따라 화장품의 기능이 연령과 사용용도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면서 화장은 폭넓은 연령층에게 자신의 미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가장 단순하고 자발적인 수준에서 상대방의 화장이나 머리모양, 의복형태 등 문화적으로 규정된 외모의 차이를 기초로 사람을 분류하고 묶는 것을 문화적 범주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범주를 통해 그 문화의 가치 규범과 구성원을 구별하고 이해하고 있다.[12]

---

12) 유송옥 외 2인, 『패션문화사』, 교문사, 1996, p. 248.

아트 메이크업은 인간의 미적 본능의 원초적 표현이며, 나아가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 수단으로 오늘날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미적 본능 중 하나인 아트 메이크업은 신체보호, 종교적인 욕구 충족, 사회적 지위 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현대에 와서 자신의 외모에 조화로운 색채를 배색하여 화려하게 표현하는 예술작품으로 보다 새롭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3>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트 메이크업의 토대가 되는 피부는 감정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격노, 수치, 공포를 느낌에 따라 피부는 새파랗게 되거나 붉어지거나 땀이 나기도 하고, 털이 곤두서는 등 다양하게 변화한다. 또 자기 표현의 다양한 형태로 투쟁, 연애, 복수 등의 기분을 전하기도 한다.[13]

환타지 메이크업은 자신이 상상하는 것을 표현하는 메이크업으로 그 방법에는 구체적인 표현과 추상적인 표현, 두 가지가 있다.[14]

구체적인 표현이란 우리 눈으로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형상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추상적 표현이란 인어, 용, 천사, 감정 등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표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점, 선과 면, 색의 적절한 사용이다. 세르쥬는 그의 대표적인 메이크업 작품 '마법사들' <그림 4>에서 별과 달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점만을 사용하여 환상적이며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그의 이 메이크업은 절제된 색조와 점의 사용으

---

13) 권경애, "눈 메이크업이 안면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 예술대학원, 2000, p. 8.

14) 김영희 외 6인, 『토털 메이크업』, 정문각, 2001, p. 130.

로 진부하거나 타성적이지 않은 창의성을 얻고 있는데, 이는 메이크업 또는 디자인에 있어서 점이라는 기본적인 요소<그림 5>가 얼마나 표현적이며 또한 중요한 요소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15]

선을 사용함으로써 직선의 강하고 기하학적인 느낌과 곡선의 부드럽고 여성적이며 환상적인 느낌을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선은 강하게 전달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테크닉 또한 강조할 부분이다. 선에도 그 느낌의 강약이 있어서 직선보다는 사선의 느낌이 더 강하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사선보다는 곡선의 느낌이 더 강하게 시선을 집중시킨다. 선이 모여 면으로써 표현될 때는 면의 크기에 따라 돌출과 진퇴의 느낌, 입체적인 느낌이 가능하다. 면이 더클 경우에는 진출의 느낌이고 면의 면적이 적을 경우에는 후퇴의 느낌이 강하다.

토마스 오스왈드의 모던 바디페인팅<그림 6>은 초현실적인 인체의 풍경을 보여 준다. 대리석 무늬처럼 인체에 그려진 선은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는 여인의 몸을 단순히 돌처럼 굳혀 놓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 물결치듯 굽이치는 선의 운동감과 빗겨 잡은 장미 줄기의 선과의 조화를 통해 우리를 흐르는 시간의 강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결코 돌처럼 굳어버릴 수 없는 생명의 아름다움이 인체위에 선으로 표현된 돌의 이미지로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체 위에 표현된 몇 가락의 선이 매혹적인 메이크업 디자인으로 변하는 것은 선의 표현력과 상상력의 놀라운 결합의 결과이다.[16]

선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 질 수 있으며 그 재료와 방법에 따라 선의 성격이 결정된다. 칼이나 가위로 자른 선은 날카롭고 정교하여 신경

15) 이영애 외 3인, 『뷰티디자인과 색채학』, 청구문화사, 2000, p. 16.
16) 이영애 외 3인, 위의 책, p. 21.

질적이나 손으로 찢어서 만든 선은 둔탁하고 자연스럽고 부드럽다. 다양한 도구에 의해 만들어진 선의 성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선의 표현적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줄리 피츠의 작품<그림 7>에서 보듯이 강한 보색대비로 채색된 여인의 몸은 사물의 외부와 내부를 동시에 암시하며 열려진 세계를 표방한다. 이렇게 구체적이거나 상징적인 색채와 함께 표현되면서 더욱 강한 표현력을 갖게 된다.

선은 면으로 발전하는데<그림 8> 어린이들은 선으로 구획되어진 형태의 내부를 채색하는 놀이를 통해 면과 형태를 함께 체험하며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이러한 과정은 본질적인 것이다. 면은 구상적 형태를 지녔건 혹은 기하학적으로 추상화된 것이건 간에 직접적인 구체성을 띄며 디자인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색은 메이크업을 표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색의 이미지와 상징이 시안과 조화를 이루도록 참조를 하여야 한다. 색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상징 성격을 잘 참조하면 이미지 전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강조를 해야 할 점은 응용을 잘 하여 설정된 컨셉을 표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소재로는 물이나 불, 나비, 꽃 등의 자연이 있고, 주제로는 기쁨이나 슬픔 등이 있는데 이 환타지 메이크업에 있어 가장 강조할 점은 극히 느낌을 중요시하는 감성적인 메이크업이라는 것이다.

아트 메이크업은 외향적인 미적 효과 외에 대중과의 일체감, 통일감의 표현, 자신의 내적·외적 감각표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시각적인 화려함과 색채 및 디자인의 독창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며 미래로 갈수록 보다 선호되는 화장형태로서 그 분야가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트 메이크업은 인체의 형태와 선의 변화 및 색의 사용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만의 개성미와 독창성을 표현한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아트 메이크업의 유형

메이크업은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뷰티 메이크업과 스테이지 메이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뷰티 메이크업은 내추럴 메이크업, 패션 메이크업, 광고 메이크업, 웨딩 메이크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고, 스테이지 메이크업은 일반 분장, 회화적 분장, 특수 분장으로 분류되며, 일반분장은 보통 분장과 성격 분장으로, 회화적 분장은 페인팅 분장과 환타지아 분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17]

본 논문에서는 아트 메이크업을 환타지 메이크업(Fantastic Make-up), 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 바디 페인팅(Body Painting)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1) 환타지 메이크업(Fantastic Make-up)

환타지 메이크업은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강하면서도 화려하고 과장되게 이미지를 표현하여 작품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기법이다.[18]

17) 한명숙, 『마뀌아쥬 예술』, 청구문화사, 1999, p. 185.

실제와 상상의 세계를 교합하는 추상적인 존재, 동물들의 형상화, 현실과 초현실을 연결하는 도구로서 발전되어 왔다. 특히 연극, 무용, 음악 등의 무대 예술에서 주로 표현되며 축제나 파티, 무도회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표현되고 있다.<그림 9, 10>

2) 페이스 페인팅

물감을 이용하여 포인트를 주듯 작은 부위에 그리거나 얼굴 전체에 그리기도 하는 형태로서 그 사용처와 역할은 다양하다.[19]

일반적으로 디자이너의 세계를 분장 예술의 한 장르로 인식하여 다양한 주제와 연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페이스 페인팅은 화폭을 그리는 평면적인 그림과는 달리 인체의 곡선과 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림 11>

표현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문양, 추상적 화법, 사실적 묘사, 의상 등 빛의 음영 처리로 부각시키는 조각상, 사진 기법을 이용한 연출 등 무궁무진하다. 특히 무대별 디자인의 완성은 소품들과 함께 조화를 이룸으로써 더욱 부각된다.[20]

또 다른 종류로는 축제에 있어 표현되는 페이스 페인팅인데 작고 조그마한 포인트용 페이스 페인팅에서 얼굴을 가면처럼 만든 마스크용 페이스 페인팅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은 다양하다. 축제의 페이스 페인팅은 흥을 돋구고 축제의 목적이나 의미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요즈음의 축제가 매우 상업적이

---

18) 한명숙, 위의 책, p. 180.
19) 김영희 외 6인, 앞의 책, p. 131.
20) 한명숙, 위의 책, p. 234.

고 지나치게 조직화되어서 축제를 즐기려는 이들의 즉흥성과 자발성의 많은 부분을 잃었다 치더라도 대중을 틀에 짜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격려하는 축제는 그 생생함을 드러내는 화려한 가장무도회가 된다. 페이스페인팅은 극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근래에까지 페이스 페인팅의 특징을 갖추며 유래된 중국의 경극과 일본의 가부끼 분장이 대표적이다.

또한 페이스 페인팅은 특별하고, 인상적으로 보이고 싶고, 집중되기를 원할 때 하는 특별한 메이크업이다. 서양에서는 크고 작은 화려한 행사, 가면무도회, 신년파티, 혹은 사육제의 마지막 말, 이브닝 파티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르러 각종 이벤트, 연예계, 광고, 연극, 영화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3) 바디 페인팅

바디 페인팅은 인간이 이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인류가 살아가며 생존을 목적으로 행한 여러 행위 중 하나이며 치열한 생존경쟁시대에 주위의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 또는 위협의 대응수단으로 원시적인 바디 페인팅이 행해지게 되었다.[21] 또한 신체예술로서의 바디 페인팅은 정지된 상태로 일정시간 동안에 자유로이 감상할 수 있는 작품과는 달리 일회적이고 보존되지 않는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정지되어 있는 예술품보다 사실적 작품에서 실험적 작품들까지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며 영상매체로서의 보존을 통해 오래도록 살아있는 감동을 줄 수 있으며, 채색법으로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이므로 인체의 골격을 먼저 파악한 후 입체적인 몸의 곡선과 면을 최대한 살려

21) 강대영, 『한국분장예술』, 지인당, 1999, p. 255.

작품성격에 맞는 이미지를 아름답게 표현한다. 작품표현 방법으로는 다양한 화법, 추상적인 문양, 사실적 묘사, 의상의 문양, 빛의 음영 처리로 부각시키는 조각상, 사진기법을 이용한 연출 등 다양하다.

순수 예술의상으로서의 바디 페인팅은 미술의 개념과 의상의 기능성을 접목시킨 새로운 표현양식이다. 조형물로서의 바디 페인팅은 인간내부의 예술적 사상과 정서가 외부의 인체라는 대상을 통해 유형화된 것이다. 그리고 작가의 자발성, 독창성, 재료의 질감이 결합된 자유로운 표현이며, 착용자에 의한 연출로 다양하게 변화되는 특징을 지닌다. 즉 바디 페인팅은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와 재료를 이용하여 인간의 몸을 이미지화 또는 형상화시켜 재구성하는 것으로 모델과 관중, 작가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22] <그림 12>는 케냐에 살고 있는 키쿠유족의 전통적인 바디 페인팅이다. 이들의 몸에 그려진 점·선·면은 단순한 장식 이상의 것이다. 그가 인간일 때 그는 몸에 그림을 그리며 몸에 그려진 그림은 인간성을 넘어 신성에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23]

이러한 원시 바디 페인팅을 그 목적에 따라 분류해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22) 박보영, 이수경, 이진용, 『Make up art』, 청구문화사, 2002, p. 206.
23) 이영애 외 3인, 앞의 책, 2000, p. 14.

<표 1> 원시 바디 페인팅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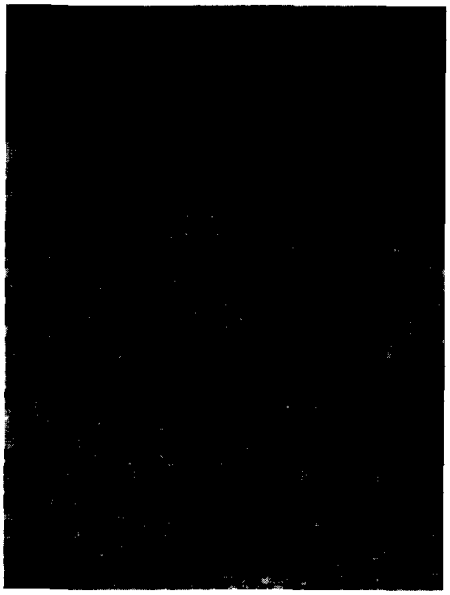
바디 페인팅의 목적	내 용
미화를 위함	아름답게 치장하여 타인과의 사이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려는 생태적 본능에서 비롯됨
보호를 위함	원시 인류가 몸에 상흔과 문신을 한 것은 적을 공포감에 몰아 넣기 위해 또는 악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심리적 물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견해
위장을 위함	전쟁 또는 사냥을 위해 새의 깃털이나 부리, 짐승의 뿔, 식물성 색소 등을 이용하여 얼굴이나 신체를 위장
장식을 위함	나체의 피부에 회화, 문신을 새겨 자신의 우월성을 표현. 원시 시대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정복자가 과시를 위한 형식으로 지금도 인디언, 아프리카, 콩고의 마요고족들 사회에서 성행[1)]
신분을 표시	신분, 계급, 종족, 남녀 성별의 구별 등 각자의 사회적 신분을 표시
종교 의식	오세아니아 Vanuatu[1)]에 거주 부족사회에서는 비밀사회가 존재. 특히 남자사회에서는 신체장식이 사회적 정치적 생활에 강한 영향. 가축을 할당받는 숫자로 신분을 차별화해 부족권 행사 각 계층이 자신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의식과 춤 행사 때, 적절한 페이스 페인팅과 신체장식의 형식을 취할 권리를 가짐.

의상표현법인 신체에 의상을 페인팅할 때는 옷감의 질감이나 신체에 의해서 생기는 굴곡, 무늬, 접힘 등을 잘 관찰하여 디자인해야 한다. 이 작업을 할 때에는 먼저 페인팅할 의상을 선정하여 모델에게 입히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관찰한 후 작업하면 편리하다.

동물표현법인 동물을 페인팅할 때에는 사전에 그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자

료를 근거로 동물의 두개골 형태, 외관상의 특징, 털의 색깔, 방향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실제 모습과 최대한 흡사하게 표현하는 방법과 그 동물의 이미지나 특징만을 잡아 페인팅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듯 인체를 하나의 조형물로 간주하고 조형디자인의 원리를 이용하여 시술된 바디 페인팅은 조형예술과 함께 예술의 한 장르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림 1> 사하라의 동굴벽화

(출처: 토털메이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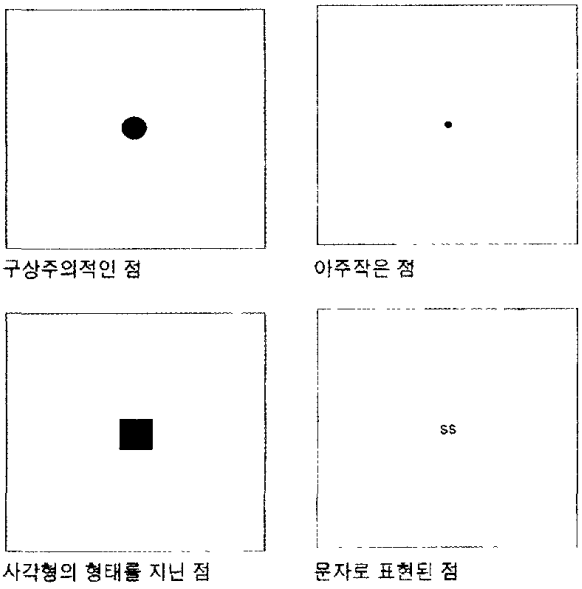
<그림 2> 회화적 장식

(출처: Decorated skin)

<그림 3> 독일의 베라 렌돌프, 자연과 인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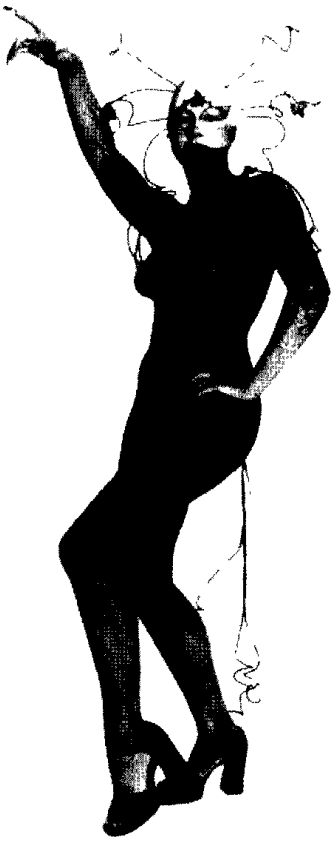
(출처: 토털메이크업)

<그림 4> 세르쥬 르땅, "마법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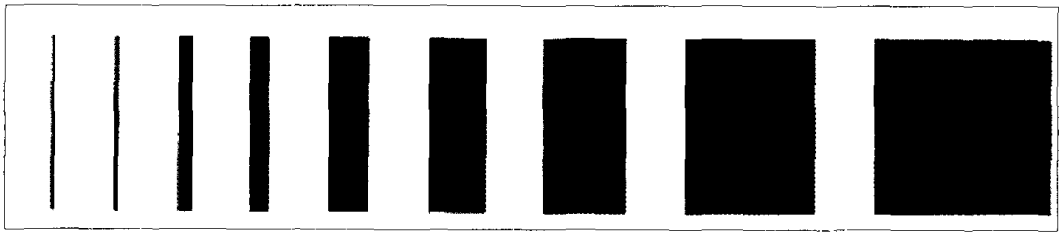


<그림 5> 메이크업의 기본 요소인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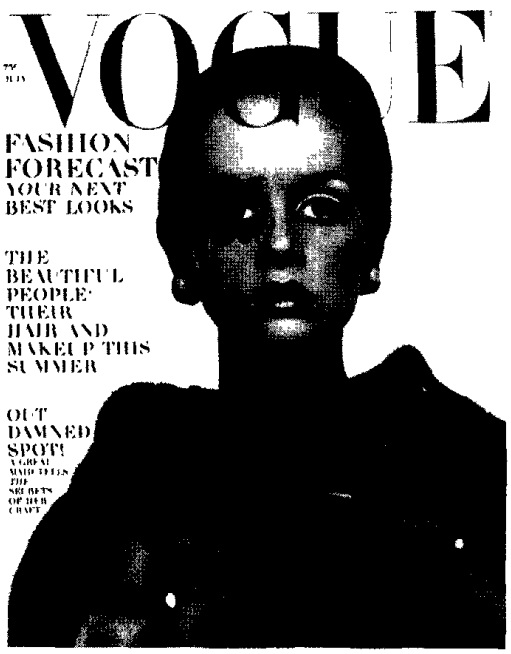
<그림 6> Thomas Oswald, 바디 페인팅
(출처: 뷰티디자인 및 색채학)



<그림 7> Julie Pitts, Poison Iv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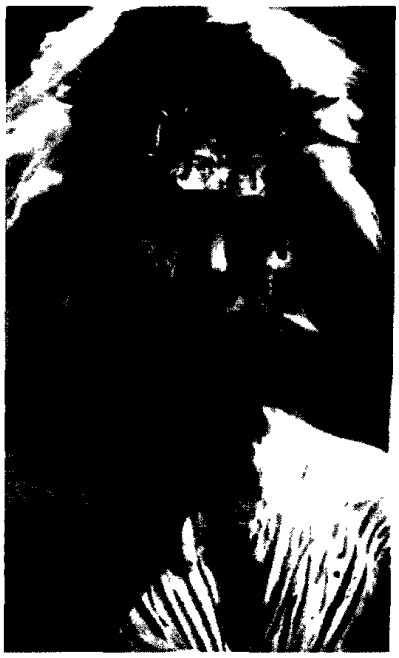
<그림 8> 선이 면으로 이행하는 단계적 서열



<그림 9> 환타지 메이크업 1967
(출처 : 메이크업 & 스타일 100년사)

<그림 10> 환타지 메이크업 본인 작품

<그림 11> 페이스 페인팅 본인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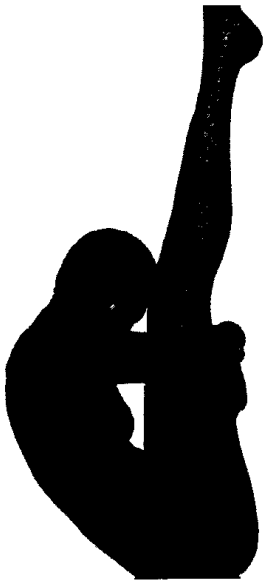
<그림 12> Kikuyu, Body Painting

<그림 13> 신분표시 장식

(출처: Karl Gröning, Decorated Skin, Thames & Hudson)

<그림 14> 신분표시의 메이크업

(출처: 마뀌아쥬예술)



<그림 15> 다양한 문양의 바디페인팅 표현

(출처: Issey Miyake, Laurence Bénaim, 1989)

Ⅲ.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 연구

1. 오브제의 개념과 유형

1) 오브제의 개념

오브제는 라틴어의 'objectum' 에서 기원된 말로서 '앞으로 던져진 것' 이라는 뜻이며 객체 또는 대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오브제의 사전적 의미는 '보여지거나 만져지는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인식되는 것과 주체(subject)가 안주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정신' 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에서는 오브제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주제' 와 대조적으로 사용되며 그 양태의 다양성으로 인해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현대회화, 특히 세잔 이후 큐비즘(입체파) 등에서는 주제성을 배제하고 물체를 중히 여겼다. 그러나 오브제라는 말이 특수한 용어가 된 것은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의 등장 이후부터이다.[24] 다다이즘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말엽부터 유럽과 미국을

---

24) 다다란 프랑스어(語)로 어린이들이 타고 노는 목마(木馬)이나, 이것은 다다이즘의 본질에 뿌리를 둔 '무의미함의 의미' 를 암시하는 것이다.

다다이즘은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작되었다. 1916년 2월 작가 겸 연출가인 H.발이 카바레 볼테르를 개점하고, 시인인 T.차라, R.휠젠베크 등과 함께 과거의 모든 예술형식과 가치를 부정하고 비합리성·반도덕·비심미적인 것을 찬미하였다. 차라는 "새로운 예술가는 항의한다. 새로운 예술가는 이미 설명적 ·상징적인 복제(複製)를 그리는 것이 아니다. 그는 돌이나 나무나 쇠로 직접 창조한다. 특급기관차(特急機關車)와 같은 새로운 예술가의 유기체는 순간적인 감동을 싣고 모든 방향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여기에 오늘날 말하는 자유분방한 오브제(objet)가 등장하는데 취리히 다다는 1920년까지 계속되었다.

초현실주의라는 말은 1917년 시인 아폴리네르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는 처음에 쉬르나튀랄리슴[超自然主義]이라는 명칭을 생각했으나, 철학용어로 오해받을 것을 염려하여 초현실주로 고쳤다고 한다. 출처: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중심으로 일어난 예술운동이며 다다(dada)라고도 한다. 조형예술뿐만 아니라 넓게 문학 ·음악까지 포함한다. 초현실주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영향을 받아, 무의식의 세계 내지는 꿈의 세계의 표현을 지향하는 20세기의 문학·예술사조이다. 쉬르레알리즘이라고도 한다.

M. 뒤샹이 1917년에 기성품인 변기를 《샘(泉)》이라는 주제를 붙여 전람회에 출품한 것과 같이 다다이즘 시대에는 기성의 일용품이나 기계부품 등이 반예술형식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초현실주의에서는 다시 자연물·수학적인 모형, 미개인의 숭배물 등의 물체를 비합리적인 또는 초(超)의식적인 인식의 대응물로서 취급하였다. 또 종래의 전통적인 조각형식을 타파한 구성작품(예를 들면 움직이는 조각 모빌 등)을 오브제라고 할 때가 있다. 미술에서의 오브제관(觀)은 흥미 있는 미적 인식 문제를 투입하고 있으나, 오브제는 예술의 재료·형식·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외부의 세계를 정복하는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 현대미술과 오브제 유형

(1) 입체주의의 오브제

입체주의는 20세기 초 파리에서 일어난 미술혁신운동으로 1908년 마티스(Henri Matisse)가 브라크(Georges Braque)의 <에스타크 풍경>을 보고 작은 입방체(cube)의 집합이라고 평한 데서 유래되었다. 브라크는 나무와 대리석의 무늬 하나를 붙이는 방법과 색을 칠한 종이를 화면에 부착시키는 등 화면의 일부를 나무결, 돌결, 활자들을 실물 그대로 그려 넣기 시작해서 신문지, 벽지, 상품 같은 실제적 종이의 단면을 화면에 붙이기 시작함으로써 <빠삐에

꼴레>라는 예술형식을 탄생[25]시켜 기존의 재료의 한계를 없앴다.

(2) 다다이즘과 오브제

파괴적, 허무주의적 경향의 다다이즘(dadaism 1915~1929)은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스위스에서 일어났으며 예술의 모든 기존 가치나 전통 등을 부정하고 불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 비심미적인 것, 비도덕적인 것을 찬미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오브제가 발전된 것은 이들 다다이스트들 덕분이었다. 독일의 다다이즘은 베를린·하노버·쾰른 등 세 곳이 중심이었는데 베를린에서는 R.하우스만, G.그로스, W.메링 등이 유명하였다. 하우스만의 아상블뢰즈(assambleuse:여러 가지 오브제 모음)나 헤히의 포토몽타주[26], 그로스의 격렬한 반전(反戰)시리즈인 ≪이 사람을 보라≫[27] 등이 탄생되었다. 베를린의 다다이즘은 1918년부터 1933년까지 계속되었다.

하노버의 중심인물, K.슈비터스는 시와 조형(造形)에서 활동하여 1923~1932년 잡지《메르츠》를 간행하였는데 작품《메르츠바우》는 길가의 널조각, 잡동사니로 만든 기둥인데 콜라주(collage)의 선구적 예(例)이기도 하다. 다다이즘의 경우 입체주의와 달리 소재를 신문지·우표 등에서 우모(羽毛)·철사·성냥개비·화폐 등으로 넓히고 있으므로 작품 효과는 크게 달라졌다.

전위적인 경향의 뉴욕에서, 1913년, 아모리쇼에 출품된 M.뒤샹의 《계단을 내려가는 나체(裸體)》는 전람회사상 보기 드문 스캔들을 일으켰다. 고속사진

25) 김선희, "오브제 개념에 의한 현대 복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 5.
26) 2장 이상의 사진을 붙여 중복인화 ·중복노출 등으로 새로운 시각효과를 노림. 고안자는 J.하트필드라고도 한다.
27) ≪이 사람을 보라≫는 제1차 세계대전 중의 군부에 대한 통렬한 풍자와 전후의 황폐, 그리고 다시 권력자로 변해가고 있는 사회 상층계급에 대한 공격을 내포하는 무산계급의 옹호를 그 특색으로 한, 예리한 시각의 소묘집(素描集)이다. 출처: 두산 세계 대백과 Encyber

처럼 역동적이며, 사진과 예술의 새로운 결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후 뒤샹은 기성품(旣成品)의 레디 메이드(ready made)를 발표, 다다이즘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1917년 제 1회 앙데빵당(Indipendent)전에 출품된 공업생산품인 변기 ≪샘≫은 [R:Mutt]라고 서명한 남성용 변기를 뒤집어 놓은 오브제로, 실체는 변기이지만 화장실에서 화랑으로 옮겨짐으로써 기성품을 새롭게 한 조형적 표현의 혁신을 불러 일으켰다. 뒤샹이 대량생산품(변기, 병건조기) 등에 서명을 해서 출품한 것은 개인의 창작이라는 범주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었다. 즉, 예술가의 선택에 의해 산업적 오브제가 예술적 오브제로 승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28]

(3) 초현실주의에서의 오브제

다다의 뒤를 이은 초현실주의는 무의식의 세계를 정복하고 심화시키고자 하는 운동이다. 모든 것을 부정하던 다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음에 반해 초현실주의는 합리주의, 논리주의를 부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였다.[29] 앙드레 브르통이 《쉬르레알리슴 선언》을 발간한 1924년부터 구체화되었으며, 1925년에는 첫 종합전이 파리에서 열렸다. 이들은 자동기술법인 오토마티즘(Automatism), 데빠이즈망(Depaysement)[30] 기법을 통해 오브제를 재

---

28) 김수경, "오브제의 조형성을 응용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p. 17~18.

29) 김선희, 앞의 논문, pp. 5~21.

30) 어떤 물건을 일상적인 환경에서 이질적인 환경으로 옮겨 그 물건으로부터 실용적인 성격을 배제하여 물체끼리의 기이한 만남을 현출시키는 기법. 원래 '환경의 변화'를 뜻하며, 보는 사람의 감각의 심층부에 강한 충격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쉬르리얼리즘(초현실주의)의 선구자인 C.로트레아몽의 시에 "재봉틀과 양산(洋傘)이 해부대에서 만나듯이 아름다운" 이라는 유명한 구절은 데페이즈망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출처: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인식하고 그 영역을 확대시켜 상상력에 의한 무의식의 표출이 자유로워졌다.

에른스트(Max Ernst)는 여러 가지 사물이 부적합한 화면에서 우연히 만나는 시각적 이미지의 연금술을 이룩했다. 달리(Salvador Dali)는 현실세계의 서로 모순되는 사물들을 오브제로 도입하여 비합리적인 상상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묘사하였다.

초현실주의 뿌리는 다다이즘에서 찾아야 한다. 초현실주의는 비합리를 예찬하고 때로는 비윤리적인 방향으로 흐르며, 콜라주와 같은 새 기법, 오브제 같은 직접적인 표현도 채택했다. 그러나 기원을 더 멀리 찾는다면, 입체주의(입체파)로 거슬러가야 한다. 입체주의는 세잔의 원근법이나 전경·후경의 배치와는 다른 공간개념이었기 때문이다. 초현실주의의 공간은 대부분 상상적·비현실 공간이므로 간접적으로 입체주의의 계열을 잇고 있다. 벨기에의 R.마그리트에 이르면 큰 바위를 공중에 띄워놓는다든지, 낮이 밤으로 변해 있는 등 정신의 전위(데빠이즈망)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미술가는 Y.탕기, M.뒤샹, A.자코메티 등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브르통, 베레, 달리 등은 미국으로 건너가 초현실주의의 선전을 계속하였다. 1947년 귀국한 브르통이 파리에서 '국제쉬르레알리슴전(展)'을 열고 공산당과 실존주의자들에 대한 집단선언서《즉시결렬》을 발표하였다. 미학적인 면에서의 초현실주의의 영향은 오늘날에 와서도 여전히 크다.

(4) 팝 아트의 오브제

팝아트(Pop Art)[31]는 60년대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난 구상미술운동으로 매

31) 1950년대 초 영국에서 그 전조를 보였으나 1950년대 중후반 미국에서 추상표현주의의 주관적 엄숙성에 반대하고 매스 미디어와 광고 등 대중문화적 시각이미지를 미술의 영역 속

스미디어의 도상을 그대로 도입하거나 상업적 테크닉, 색채를 주로 사용했다. 팝아트는 일상의 오브제를 무심하게 드러내거나 페인팅함으로써 예술성에 상업성을 더했다. 팝아트라는 말은 미술평론가 L.앨러웨이가 1954년,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국의 팝 아트는 사회 비판적이므로 다다이즘과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영국 작가 해밀턴이 바람직한 예술의 성질로 열거한 순간적, 대중적, 대량 생산적, 청년 문화적, 성적(性的), 매혹적, 거대 기업적일 것 등은 현대 대중문화의 속성을 그대로 압축한 것이다.

그러나 팝 아트의 성격은 미국적 환경에서 더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R.라우션버그와 J.존스는 이미 50년대 중반부터 대중문화적 이미지를 활용하였는데, 다다이즘과 유사하다고 네오 다다(Neo dada)로 불려졌고, 그 외 신사실주의, 신통속주의 등 다양하게 호칭되었다.

팝 아트는 매스 미디어, 상품광고, 쇼윈도, 고속도로변의 빌보드와 교통표지판 등의 일상적인 것 들 뿐만 아니라 코카 콜라, 만화 속의 주인공 등을 미술 속으로 도입함으로써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이라는 이분법적, 계층적 구조를 무너뜨리고, 산업사회의 현실을 미술 속에 적극 수용하고자 한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상품미학에 대한 비판적 대안의 제시보다 소비문화에 굴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5) 현대미술에 나타난 오브제의 특성

입체주의 콜라주 출현에서부터 다다, 초현실주의, 팝아트까지 살펴본 결과 현대 미술에 나타난 오브제의 유형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32]

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던 구상미술의 한 경향이다.

32) 유형분석은 김희봉, "현대미술에 있어서 오브제의 유형과 의미",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첫째, 조형적 오브제는 비독립적이다. 오브제를 최초로 사용한 피카소와 브라크의 파피에 콜레 형식의 작품은 화면에 물감이 아닌 종이, 신문, 트럼프, 성냥갑, 악보, 담배갑 같은 인쇄물을 등장시켰다. 일상의 물질을 회화의 조형수단화 하는 현대회화의 확대는 여기서 비롯되었다. 피카소의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 브라크의 ≪과일접시와 유리잔≫, 쉬비터즈의 ≪메르쯔 콜라주≫ 등이며 특히 쉬비터즈의 콜라쥬는 입체 콜라주로 발전하였다.

둘째, 독립된 오브제는 하나의 사물이 그대로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나타낸다. 이것은 M.뒤샹으로부터 발생한 오브제 개념으로서 그의 최초의 레디메이드 작품인 ≪자전거 바퀴≫가 이에 속한다.

셋째, 이미지 표상의 오브제로서 초현실주의와 팝아트의 오브제는 이미지 자체를 오브제로 선택하여 극사실로 묘사하여 비개성적인 성격을 갖게 하거나 한 이미지를 반복 나열하여 인간내면의 무의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넷째, 현장적 오브제는 우리 주위의 환경 그 자체를 작품으로 한 것이다. 규모와 재료의 확대를 가져와 오브제와 환경의 조화를 도모한다. 이상과 같이 오브제를 통해 현대 미술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 확대되고 있다.

2. 오브제와 아트 메이크업

오브제 개념은 현대 미술에 있어 기법이나 재료의 제한을 없애고 일상의 사물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조형개념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오브제는 현대의 메이크업에 영향을 미쳐 소재확장과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상상

1996을 참조.

력과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매 시즌마다 화려한 의상과 파격적인 메이크업으로 관심을 모으는 크리스챤디올컬렉션, 헐리우드 스타들을 컨셉트로 컬렉션을 진행한 라파엘 로페즈 컬렉션, 파격적인 의상과 메이크업 액세서리로 항상 프레스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는 존 갈리아노 컬렉션 등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해마다 다양한 기법으로 소재를 개발하여 새롭고 조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그것은 여태 것 시도되지 못했던 소재일수록 신선한 자극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일 것이다.

3. 아트 메이크업에 응용된 오브제의 소재 분석

현대 메이크업에 있어 오브제의 도입은 미술에서 영향을 받은 메이크업 디자이너들에게 소재확장에 따른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20세기 초 브라크와 피카소가 처음으로 물감 이외의 다양한 재료를 화면에 부착하여 부조적인 이미지의 오브제를 사용하였듯이 메이크업에서도 조형성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화장품 이외에 레이스, 깃털, 천, 펄, 반짝이, 꽃잎, 스팡클, 비즈 등을 이용해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오브제는 작가의 표현에 적합하다면 어떠한 것도 소재로 가능하며 메이크업에 적용되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을 제한 없이 부착하여 조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업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오브제의 소재를 자연소재의 오브제와 인공소재의 오브제로 나누어 아트 메이크업을 살펴보았다.

1) 자연소재의 오브제

자연은 인간과 조형의지로 인하여 여러 방법으로 표현되어 왔고, 예술가들이 자연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무엇보다 먼저 관찰을 하게 되고, 그 관찰을 통하여 얻은 직관으로 이미지를 나타낸다.[33]

에어드는 예술은 자연을 앞에 세워 놓은 거울과는 다르며 구체적인 감각을 통해 나타난 인간 표현이라고 하였다.[34] 따라서 자연을 소재로 한 조형작품은 예술가의 미의식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로 탄생된 자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35]

자연의 이미지로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에는 깃털, 꽃, 나무 등이 많이 이용되며 에콜러지 경향에서 많이 나타나는 자연물을 소재로 한 오브제는 여러 가지 소재를 입체적으로 콜라주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1) 식물(꽃, 채소 등)

자연의 대상 중에서 꽃은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형태와 구조의 미가 무한한 미적 충동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하다. 꽃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생명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신비로운 질서와 조화를 지닌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하나이다. 한 송이의 꽃에서 우주의 신비를 보며 꽃이 가지고 있는 청순한 아름다움을 통해 잃어 가고 있는 인간의 신뢰감을 회복하여 준다.

꽃은 인간에게 심상을 불러일으키며, 인간은 꽃을 마치 감성이 있는 대상으로 느끼며, 그로 인해 많은 예술작품의 소재가 되고 있다.[36]

---

33) 최지나, 앞의 논문, p. 151.
34) Erhard John, 김인경 역, 『미학의 문제』, 다민, p. 38.
35) 최지나, 앞의 논문, p. 151.
36) 최지나, 앞의 논문, p. 151.

<그림 16>은 속눈썹 대신 꽃잎을 응용하여 아트 메이크업의 효과를 높였다. <그림 17>은 다양한 꽃을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연출하여 꽃이 갖는 신비함과 생동감을 환상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인체에 꽃을 표현하여 인체와 자연과의 친밀감을 나타내었다.

(2) 깃털

자연물의 도입은 자연의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경향이 많은데, 깃털은 과거에서부터 인체를 장식하고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갖는 소재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현대의 패션쇼나, 무대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림 18>, <그림 19>는 다양한 종류의 깃털과 페인팅을 통해 완성된 아트 메이크업이다. <그림 18>은 새의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깃털을 인체의 꼬리부분에 붙이고 등줄기를 따라 깃털로 장식하여 날렵한 새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19>는 눈 주위로 깃털을 방사형으로 생동감 있게 붙임으로써 이글거리는 태양의 정열적인 느낌을 주고 있으며,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그리고 있다.

(3) 머드

자연산 진흙은 바디 페인팅의 좋은 재료가 된다. 두껍게 바르면 양감과 질감이 생기고, 얇게 바르면 피부가 들여다보이면서 머드의 색감을 낼 수 있다. 마른 후에 채색이나 덧칠이 가능하고 거친 느낌을 표현하는데 적당하며 수분이 증발하며 굳으므로 입체적 표현에 효과적이다. 헤어의 형태도 머드를 사용해 원하는 디자인대로 만들 수 있다.

특히 머드 자체만으로도 아트 메이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자

연을 표현하는 작품에 많이 사용된다. <그림 20>은 천연의 머드와 나뭇가지를 오브제로 응용한 바디 페인팅이다.

(4) 석고

석고도 머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재질이 조금 더 딱딱하므로 마른 후 균열의 효과를 살려 작업할 수 있다. 몸의 유연한 움직임에는 부적절하므로 정적인 표현에 사용된다.

<그림 21>은 석고를 흩뿌려 발라 거친 느낌을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 검은색과 어두운 붉은 계통의 채색을 더해 파괴되고 허물어져 가는 고대 유적의 도시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 22>는 별다른 채색 없이 흰 석고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있다. 대신에 붉게 채색된 4개의 팔을 통해 강한 대비를 느끼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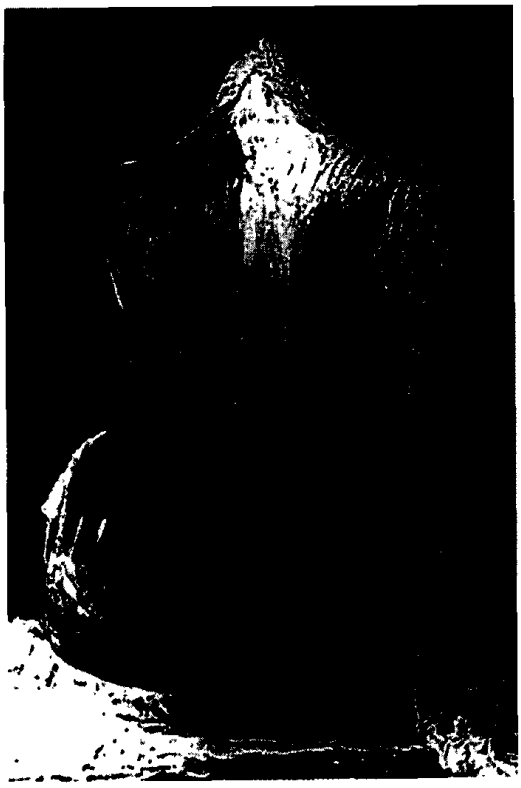
<그림 16> 꽃잎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출처: topolino —MAKE-UP GAMES, ASSOULINE)

<그림 17> 꽃과 잎사귀 오브제 아트 메이크업
(출처: vogue make up)

<그림 18> 깃털 오브제 메이크업
최지나 작품

<그림 19> 깃털을 응용한 오브제 메이크업
(출처: Catherine Ormen, Bettina Rheims 외, Topolino, Assouline, 2002)

<그림 20> 머드 오브제 메이크업
최지나 작품



<그림 21> 석고를 이용한 오브제메이크업
(출처: 박혜선)

<그림 22> 석고 오브제 메이크업
(출처: body paint)

2) 인공소재의 오브제

오브제는 작가의 표현에 적합하다면 어떠한 것도 소재로 가능하며 아트 메이크업에 적용되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을 제한 없이 부착하여 조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아트 메이크업에 표현된 인공적 오브제의 소재는 레이스와 비즈, 펄 파우더, 종이, 패브릭, 금속 등 재료의 제한이 없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조형적이고 흥미로운 표현효과를 주고 있으며 무한한 소재가 단독으로 쓰이거나 여러 가지 이질적 소재가 여러 가지 기법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디자인 창작 과정에서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아트 메이크업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인공 소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레이스와 비즈

레이스는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 레이스를 응용한 메이크업은 패션쇼 등에서 메이크업 디자이너들에 의해 속눈썹 등에 부분적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레이스 소재는 디자인에 따라 원하는 크기나, 문양을 잘라내어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문양과 결합하여 재구성되어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림 23>은 레이스를 손 전체에 표현하고 머리카락은 완전히 감춰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레이스 문양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레이스의 화려함이 강조되고 극도로 절제되고 의도된 여성상이 강조되고 있다. <그림 24>는 얼굴 전체에 망사를 씌우고 붉은 입술 색과 붉은 입술 모양의 소품을 통해 화면 전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망사는 여성의 신비로움을 강조하고 상대방과의 선을 긋는 경계물로서 여

성의 위엄과 품위를 상징한다. <그림 25>는 망사와 보석, 어깨너머의 시선을 통해 감추고 싶은 여성의 비밀과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26>은 흰색 망사를 통해 순결한 아름다움의 소중함과 영원함을 상징하고 있다.

<그림 27>은 크리스챤 디올의 컬렉션으로 눈썹부분에 레이스를 붙이고 눈꼬리에는 블랙과 레드로 색의 대조를 보여주고 입술 위에 빨강색 비즈를 붙여 주었다.

눈썹이 있어야 할 위치에 레이스를 부착시키고 쌍거풀 라인에는 얇은 블랙 레이스천을 부착, 그 위에 긴 인조 속눈썹을 붙인 후 깃털을 또다시 아이라인 선에 맞춰 붙인 모습이 물랑루즈의 무희를 연상케 해준다.

<그림 28>은 존 갈리아노 컬렉션에서 보여준 오브제를 응용한 작품으로 몸 전체에 블루의 네이비 컬러로 페인팅을 한 후 이마에는 골드비즈와 컬러풀한 비즈를 부착, 환상적인 이미지를 연출했고, 입술은 레드계열의 비즈로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다.

<그림 29>는 사실적인 나비모양을 얼굴에 페인팅하였고 비즈를 부착하여 더욱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2) 반짝이(Glitters)

환상적인 표현을 하고자 할 때 혹은 미래적인 느낌의 표현 등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반짝이는 패션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며 아트 메이크업에서는 무대연출에 조명과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연출되어진다. 단 포토작업에 있어서는 반짝이의 느낌을 잘 살려 표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그림 30>은 반짝이를 이용한 환타지 메이크업으로 인간의 양면성을 아트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31>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피부색 위에 푸른 톤의

반짝이를 흩뿌림으로써 별 다를 것 없는 현실 속에 숨겨진 희망과 간간이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3) 인조보석

인조보석은 화려함을 주기 위해 얼굴의 액센트가 되는 미간이나, 눈꼬리 부분에 붙이면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꽃의 꽃술 부분이나, 장신구를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으며, 인조보석의 크기에 따라 붙이는 위치를 세밀하게 고려해야 디자인의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

<그림 32>는 눈 주위에 인조보석을 부착하여 화려함을 더해주었다.

<그림 33>은 흰색 의상과 눈 주위에 아치 모양의 흰색 인조 보석을 통해 요란하지 않으면서 청순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34>는 눈 주위를 검게 칠하고 머리카락은 검은 천으로 두름으로써 강한 메시지와 인상을 주고 있으며 스팡클을 부착함으로써 너무 강한 인상의 부담감을 덜고 적절한 변화를 주고 있다.

(4) 패브릭

패브릭은 자유롭게 오리고 붙이고 싸고 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 자체의 특성 때문에 오브제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섬유와 같이 동일한 소재결합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오브제 기법은 주로 패치워크, 아플리케를 이용해 표현되며 원하는 문양이나 조각들을 이어 붙여 평면적이면서도 입체적인 효과를 주어 입체파회화에서와 같이 분리된 조각들에 대한 강한 표현성을 실현해 준다.

<그림 35, 36>은 패브릭에 나염된 디자인을 페이스페인팅에 그대로 재현하여 패브릭과 인체를 동일시시킨 아트 메이크업이다. <그림 36>은 패브릭에 그려진 하트 모양을 얼굴에 재구성하여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 37>은 패브릭을 이용해 꽃의 형태와 속눈썹을 만들어 붙여줌으로써

봄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림 38>은 호랑이 무늬가 그려진 패브릭을 얼굴과 연결하여 구성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5) 종이

종이는 두께, 크기, 질감, 색상 등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현대 미술에서의 종이는 입체주의에서의 빠삐에 콜레를 기점으로 회화에 등장하였다. 아트 메이크업에 나타난 조형적 오브제로서 종이는 신체 자체에 콜라주하거나 종이와 섬유 오브제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그림 39>는 바디 페인팅에 종이를 이용하여 조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킨 아트 메이크업이다. <그림 40>은 종이를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모던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 41>은 종이를 오리거나 붙여서 눈썹을 표현한 것으로 심플한 모델의 헤어스타일과 함께 상상력을 자극하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2>와 <그림 43>, <그림 44>는 종이를 오려 눈썹 모양을 만들거나 꽃 모양, 나비 모양으로 만들어 신체에 부착하거나 장식함으로서 여성스러운 우아함을 강조하였다.

(6) 금속

금속은 특수한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는 잘 전도하여 퍼지고 늘어지는 성질이 풍부한 물질의 총칭이다. 현대 패션에서 금속이 고정관념을 벗어나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7년 알루미늄판으로 만든 메탈드레스와 1968년 파코라반의 알루미늄 저지의 개발을 시작으로 철강으로 의상을 만든 것에서 부터이다.[37] 금속은 이어 붙였을 때 조명에 의해 반사효과가 패턴을 형성하며 이러한 금속을 이용한 디자인은 미래적이고 전위적인 느낌을 준다.

---

37) 고주영, "현대미술에 나타난 오브제를 응용한 패션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36.

<그림 45>는 금속류의 일종인 철사를 머리 위에서부터 둥글게 휘감아놓음으로써 예리하고 기계적이며 강하게 반응하는 금속의 특징을 잘 살리고 있다. <그림 46>은 금속 선을 얼굴 위로 망사처럼 드리워 놓음으로써 여성의 신비로움과 위엄, 이국적이고 외계적인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다.

(7) 공산품(비닐, 아크릴, 필름, 플라스틱)

1960년대 등장한 팝아트의 영향으로 반투명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이 패션에 새로운 소재로 등장하였다. 플라스틱, 비닐, 합성재료는 전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메이크업에 많이 적용되어 나타난다. 비닐소재는 디자인에 맞게 오리고 잘라 재구성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소재로써 작품에 응용하기 쉬운 특징이 있다.

<그림 47>은 비닐소재를 눈썹과 헤어밴드로 표현함으로써 입체적이고 조형적인 표현과 함께 사이버틱하고 독특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8) 기타

위에 열거한 재료들 외에도 일상생활용품 중에는 오브제 메이크업의 소재로서 개성 있는 표현을 위하여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비닐 랩이나 종이로 된 달걀 포장지, 커피 분말 가루, 알루미늄 캔, 철사·못 등 금속류, 풍선, 고무 종류, 스트로우, 초코렛 덩어리, 밀가루 반죽, 레몬 등 과일류와 껍질, 동물의 가죽, 플라스틱 모형이나 조각 등등 일일이 그 종류를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처럼 다양한 질감과 색감의 재료들을 인체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작가가 작품을 하면서 항상 고민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8>, <그림 49>의 빵과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과 식탁 위에 놓여진 과자와 빵, 차를 재미있게 구성하여 신선함을 주었으며 음식을 소재로

하여 예술적으로 표현한 아트 메이크업이다.

<그림 50>은 하얀 인조 각설탕을 부착하여 차가운 이미지와 깨끗한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 <그림 51>은 특수분장 재료인 아이스파우더를 모델의 얼굴에 부착함으로써 눈과 얼음을 연상케 하고 있으며 서늘한 느낌을 준다.

<그림 52>는 모형 거미를 통해 음산하고 기괴한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23> 레이스 오브제 아트 메이크업

<그림 24> 레이스 오브제 아트 메이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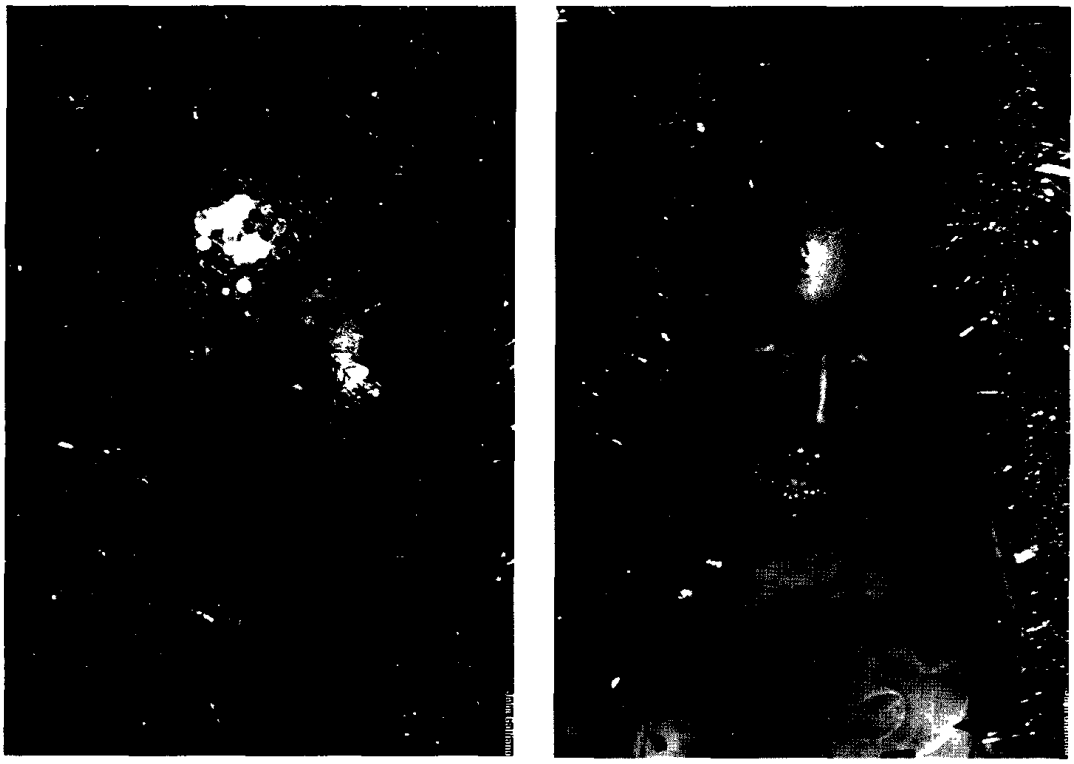
(출처: Serge Lutens)

<그림 25> 망사 오브제 메이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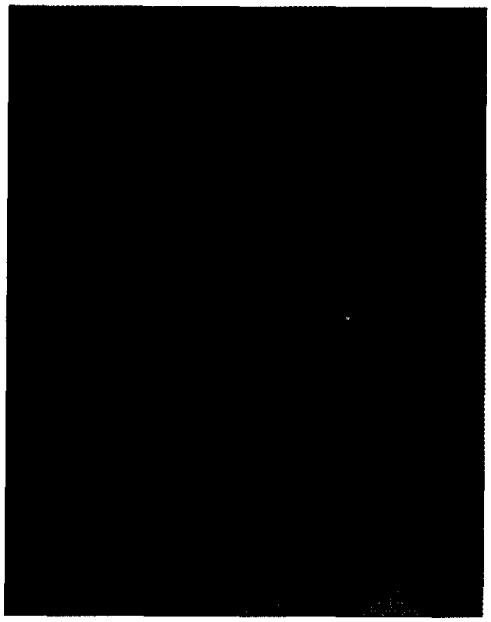
<그림 26> 망사 오브제 메이크업

(출처: A history of Fashion)

<그림 27> 레이스 오브제 메이크업
(출처 : 동아 TV CH34, 뷰티 컬렉션 2003. Spring & Summer)



<그림 28> 비즈 오브제 메이크업
(출처: 존 칼리아노 컬렉션, 동아 TV CH34, 뷰티 컬렉션 2003. Spring & Sum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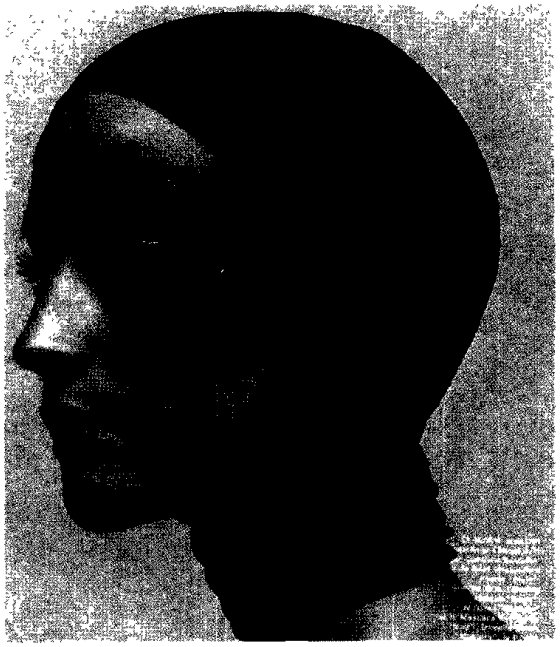
<그림 29> 비즈 오브제 메이크업
(출처: make up artist magazine)

<그림 30> 반짝이를 이용한 메이크업 1

<그림 31> 반짝이를 이용한 메이크업 2
(출처: Topolino)

<그림 32> 인조보석
(출처: vogue make up)

<그림 33> 인조보석(출처:make-up forever paris)



<그림 34> 스팡클(출처: Jalouse)

<그림 35> 패브릭 오브제 메이크업

<그림 36> 패브릭 오브제 메이크업

(출처: Lucinda Grant)

<그림 37> 패브릭을 응용한 오브제 메이크업

(출처: Spring 2003 Christian. Dior)

<그림 38> 패브릭을 응용한 오브제 메이크업

(출처: Body Paint)

<그림 39> 종이 오브제 메이크업
(출처: Corps Peints)

<그림 40> 종이 오브제 메이크업
(출처: Issey Miyake)

<그림 41> 종이오브제 메이크업
(출처:vogue make up)

<그림 42> 종이 오브제메이크업2
(출처:millennlum m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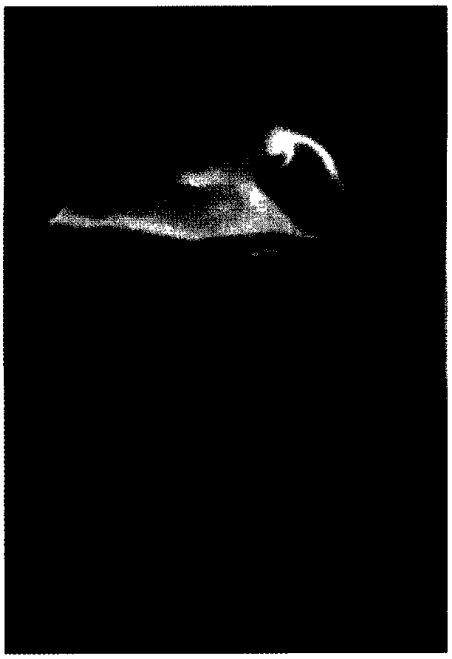
<그림 43> 종이(꽃모양) 오브제 메이크업
(출처: Ivana Bastianello)

<그림 44> 종이(나비) 오브제메이크업
(출처: 2003 Haute couture, philip Tre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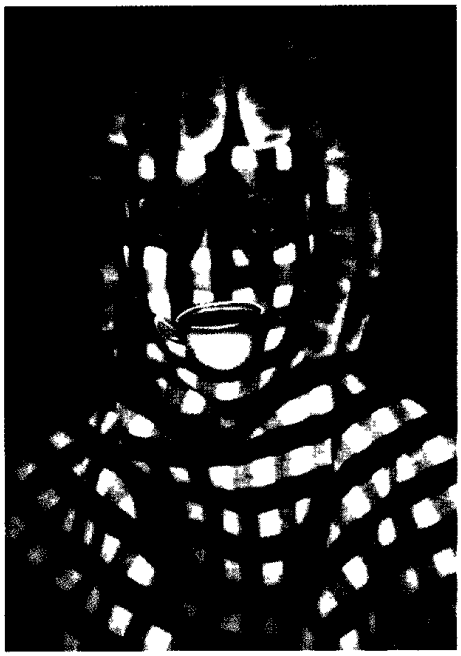
<그림 45> 철사를 이용한 아트 메이크업 1

<그림 46> 철사를 이용한 아트 메이크업 2
(출처: A history of Fashion)

<그림 47> 비닐(출처: vogue make up)



<그림 48> 패브릭+종이
(출처: II Tracco e la maschera)



<그림 49> 인공(빵)
(출처: II Tracco e la maschera)

<그림 50> 각설탕
(출처: A history of Fashion)

<그림 51> 아이스 파우더
(출처: make up artist magazine)

<그림 52> 모형 거미(출처: Ⅱ Tracco ela maschera)

Ⅳ.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 연구

1. 작품제작의도

과거의 메이크업이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의 추구와 패션과의 조화를 이루는 뷰티메이크업이 주를 이루었다면 현대의 메이크업에서는 패션쇼, 무대, 이벤트,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트 메이크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많은 메이크업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아트 메이크업 표현을 시도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그러나 기존의 아트 메이크업에 주로 사용되었던 뷰티메이크업 재료와 인체용 유, 수성 물감만으로는 창의적인 표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아트 메이크업에도 새로운 소재가 오브제로 응용되어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실험적인 아트 메이크업이 다양하게 표현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현대의 아트 메이크업에 오브제를 결합시켜 기법이나 재료의 제한을 두지 않고 독창적이고 조형적인 새로운 이미지의 아트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다. 또한 기존의 아트 메이크업에 적용되어 표현되어진 소재이더라도 독창적인 표현 방법으로 아트 메이크업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의 7점의 작품에서는 다양한 소재의 개발을 목적으로 각기 다른 소재를 오브제로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을 제작하여 아트 메이크업에 응용된 오브제의 소재 개발에 무한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인체에 표현되는 아트 메이크업의 평면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하

여 소재를 재구성한 후에 인체에 직접 부착하여 조형적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에 사용되는 오브제는 깃털, 레이스, 인조보석, 패브릭, 부직포, 털실, 스트로우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아트 메이크업에 응용하였다. 또한 작품은 인체의 얼굴과 상반신을 중심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작품제작에서는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을 인체에 표현하여 새로운 이미지의 아트 메이크업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제작방법

작품제작은 주제, 기법, 색채 등에 제한 받지 않고 오브제가 작품의 일부인 소품으로만 응용되던 기존 작품의 한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오브제의 특성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을 모색하였다.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제작은 인체를 대상으로 2점의 작품은 얼굴에 주로 표현하였고 5점의 작품은 인체의 상반신에 표현하였다.

인체에 직접 제작하는 과정은 작품제작 소요시간이 길어지는데 따른 모델의 정신적, 신체적 부담과 작품수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디자인 단계에서 미리 감안하여 충분히 숙련된 테크닉으로 제작에 참여하여야 한다.

각 작품에 응용된 오브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레이스, 부직포, 패브릭, 털실, 스트로우, 인조보석, 깃털 등의 소재를 오브제로 선택하여 재구성 한 후 아트 메이크업에 응용하였다.

아트 메이크업의 디자인에 따라 레이스는 여성스럽고 우아한 오리엔탈 이미지의 아트 메이크업에 응용하였고 패브릭 소재는 철사를 이용하여 볼륨감을 주어 불규칙한 크기로 재구성한 뒤 나뭇잎의 이미지로 아트 메이크업에 응용하였다.

또한 가볍고 쉽게 몸에 부착할 수 있는 부직포 소재는 블랙라이트에 발색하는 형광수성크림으로 미리 채색한 뒤 도시의 불빛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틸실은 거미줄의 이미지로 재구성하여 인체에 부착시켜 아트 메이크업에 응용하였다.

인조보석은 반짝이는 소재의 광택을 살려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의 라인에 응용하였으며 깃털은 가볍고 하늘거리는 소재의 특성을 살려 새 이미지의 아트 메이크업에 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트로우는 소재의 길이와 색감을 재구성하여 미래적인 이미지의 아트 메이크업에 응용되었다.

각 소재의 부착은 인체용 접착제를 사용하였다. 가벼운 소재는 속눈썹용 접착제를 사용하였으며 무게감이 있는 소재는 접착력이 우수한 스프리트껌[38]을 사용하였다. 또한 부피가 큰 소재의 부착은 투명 낚시줄을 응용하여 인체에 부착시켰다.

이와 같이 각 소재의 특성별로 아트 메이크업에 응용된 7점의 작품을 제작하여 무한한 소재 개발과 함께 오브제의 다양한 응용으로 독창적인 아트 메이크업을 제작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트 메이크업 제작에 사용된 재료로는 유성보다 인체에 부담이 적은 인체용 수성물감과 에어브러쉬 수성물감으로 브러쉬와 스폰지, 에어브러쉬건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인체라는 특성상 작품의 보존이 어려우므로 각 작품을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아트 메이크업 작품에 응용된 소재도 함께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

38) 스프리트 껌(Spirit Gum) : 99%주정 알코올에 소나무액(송진)응 용해한 반투명 액체 상태의 접착제로 수염의 접착, 핫폼 작업, 눈썹 지움 등 분장시 필요한 모든 접착작업에 사용하며 광택이 난다. 굳는 속도와 농도가 제품마다 달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항상 적당한 농도가 유지되도록 보관해야 한다.

3.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의 표현

1) 작품 I

가. 주제 : 깃털을 응용한 표현기법연구

나. 작품설명

작품 I은 새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새의 깃털을 인체에 직접 응용하여 아트 메이크업을 제작하였다.

깃털은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고 가벼운 소재이기 때문에 작품의 컨셉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다양한 소재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패션 메이크업 등에 아트적인 눈썹표현에 부분적으로 많이 응용되어 왔다.

본 작품에서는 새의 이미지를 얼굴을 중심으로 눈썹에 포인트를 주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눈썹과 이마 부분에 불규칙적인 크기의 깃털을 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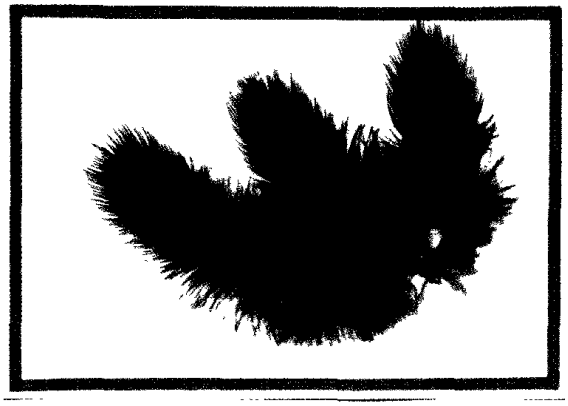
아트 메이크업의 디자인 컨셉에 따라 깃털을 선택하였으며 깃털의 크기는 5cm미만의 것으로 선택하였다. 메이크업의 재료는 뷰티메이크업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깃털의 광택과 하늘거리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아이새도우는 블루컬러의 크림화운데이션을 사용하여 글로시한 느낌을 강조하였다.

아이메이크업 위로 눈썹모양의 곡선을 따라 깃털을 속눈썹용 풀을 이용하여 부착시켜 주었다. 아이라인은 생략하였으며 눈아래 점막위로 화이트 펜슬을 이용하여 라이너를 그려줌으로써 모델의 눈동자를 더욱 맑고 깨끗한 새의 이미지로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아이메이크업의 강조를 위해 립컬러, 치크컬러 등 색조 메이크업은 절제하였다. 이와 같이 깃털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은 가벼운 소재의 특성 때문에 원하는 디자인대로 인체에 부착하기 쉽고 입체적이며 환상적인 효과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깃털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을 통해 기존에 사용되었던 소재의 인체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응용하고자 하였으며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다. 오브제 : 깃털



라. 작품 Ⅰ

<작품 Ⅰ> 깃털을 응용한 작품

2) 작품 Ⅱ

가. 주제 : 레이스를 응용한 표현기법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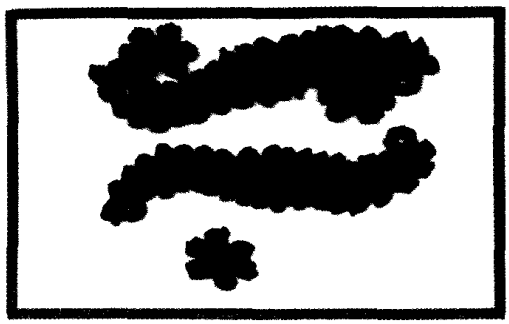
나. 작품설명

작품 Ⅱ는 레이스 소재의 오브제를 응용하여 표현한 작품으로 레이스의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켜 오리엔탈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레이스를 응용한 메이크업은 패션쇼 등에서 메이크업 디자이너들에 의해 속눈썹 등에 부분적으로 사용되어지기는 하였으나 본 작품에서는 레이스 문양을 필요한 부분만 이용하여 눈썹과 팔 전체에 재구성하여 마치 레이스 의상을 표현한 듯한 신비로운 느낌의 아트 메이크업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레이스 소재는 디자인에 따라 원하는 크기나, 문양을 잘라내어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문양과 결합하여 재구성되어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표현 재료로는 얼굴과 팔 전체에 에어브러쉬용 수성화이트 물감을 사용하여 메이크업하여 섬세하고 고른 피부표현을 하였다. 또한 화이트와 블랙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색조 메이크업을 절제하고 립 메이크업만 레드로 강조하였다. 레이스는 디자인 컨셉에 따라 부착력이 우수한 스프리트껌을 눈썹과 팔 전체에 붙여, 눈썹을 그린 것 같은 느낌과 레이스 소재의 옷을 입은 듯한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스럽고 우아한 이미지 표현에 레이스 오브제를 응용함으로써 환상적인 아트 메이크업 표현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 오브제 : 레이스



라. 작품 Ⅱ

<작품 Ⅱ> 레이스를 응용한 작품

3) 작품 Ⅲ

가. 주제 : 인조보석을 응용한 표현기법 연구

나. 작품설명

인조보석을 오브제로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은 기존작품에서도 시도되기는 하였으나 아이메이크업이나, 입술 등 부분적으로만 사용되어 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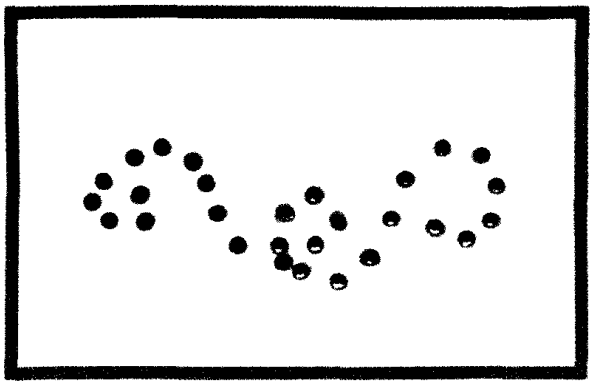
작품 Ⅲ에서는 인조보석의 응용을 작품전체문양의 라인에 사용하여 소재 적용범위의 확대를 시도하였다. 전체적인 작품의 이미지는 클레오파트라의 화려함을 인조보석의 화려한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제작은 레이스 패턴의 문양을 제작하여 인체용 고형타입 수성물감을 스폰지로 이용하여 찍어내는 스탠실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작은 브러쉬로 전체 그림의 선을 다시 그려주어 섬세한 표현을 하고자 하였다.

그림은 인체의 가슴라인에 중점을 두어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하였으며 문양의 전체라인에 스프리트껌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인조보석을 붙여주었다.

인조보석을 응용한 작품은 하나하나 붙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작품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으나 물감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클레오파트라의 화려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는 적합한 소재이다

다. 오브제 : 인조보석(큐빅)



라. 작품 Ⅲ

〈작품 Ⅲ〉 인조보석을 응용한 작품

4) 작품 Ⅳ

가. 주제 : 비닐소재의 패브릭을 응용한 표현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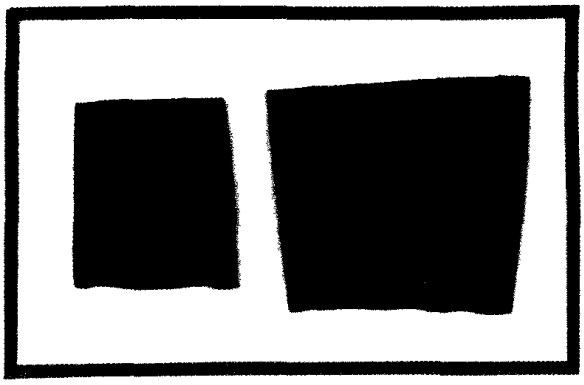
나. 작품설명

작품 Ⅳ는 비닐소재의 패브릭을 응용하여 나뭇잎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다. 패브릭은 원하는 디자인에 맞게 오리고 잘라 재구성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소재로써 작품에 응용하기 쉬운 특징이 있다. 평면적인 표현을 탈피하기 위하여 불규칙한 크기로 잘라놓은 패브릭에 철사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나뭇잎의 이미지를 만들어 인체에 부착하였다.

메이크업 재료는 인체용 고형타입 수성물감을 브러쉬를 이용해 그라데이션 하였으며 3cm~10cm 크기의 재구성된 오브제를 스프리트 껌을 이용해 비대칭적으로 인체에 부착시켜주었다.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이 그라데이션 효과를 위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패브릭의 선택도 같은 문양의 옐로우와 그린의 두 가지 컬러의 패브릭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패브릭을 재구성하여 아트 메이크업에 응용할 경우에는 인체용 물감만을 사용하여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에는 얻을 수 없는 입체적이고 조형적인 아트 메이크업을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 오브제 : 비닐소재의 패브릭



라. 작품 Ⅳ

<작품 Ⅳ> 패브릭을 응용한 작품

5) 작품 V

가. 주제 : 부직포를 응용한 작품표현 연구

나.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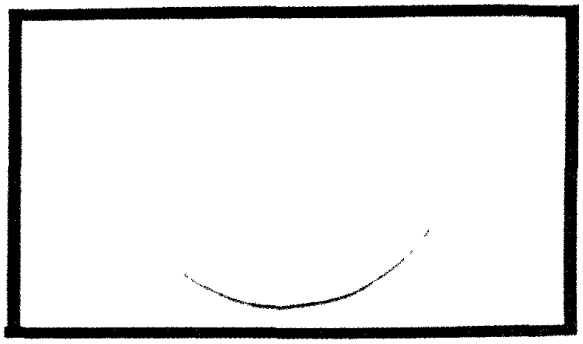
작품 V는 부직포에 인체용 수성크림 형광물감을 사용하여 독특한 효과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복잡하고 다양한 형광컬러로 도시의 불빛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가볍고 형태변화가 용이한 부직포를 지름 3cm~10cm의 불규칙한 크기의 원으로 자른 후 브러쉬를 이용하여 형광 수성크림물감을 부직포에 미리 채색해 놓는다. 인체용 형광 수성크림물감은 블랙라이트를 조명으로 사용하여야만 발색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할 때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조명에서 보여지는 컬러와 블랙라이트에서 보여지는 컬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파악한 후 소재에 채색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블랙라이트를 켜 주어 컬러를 확인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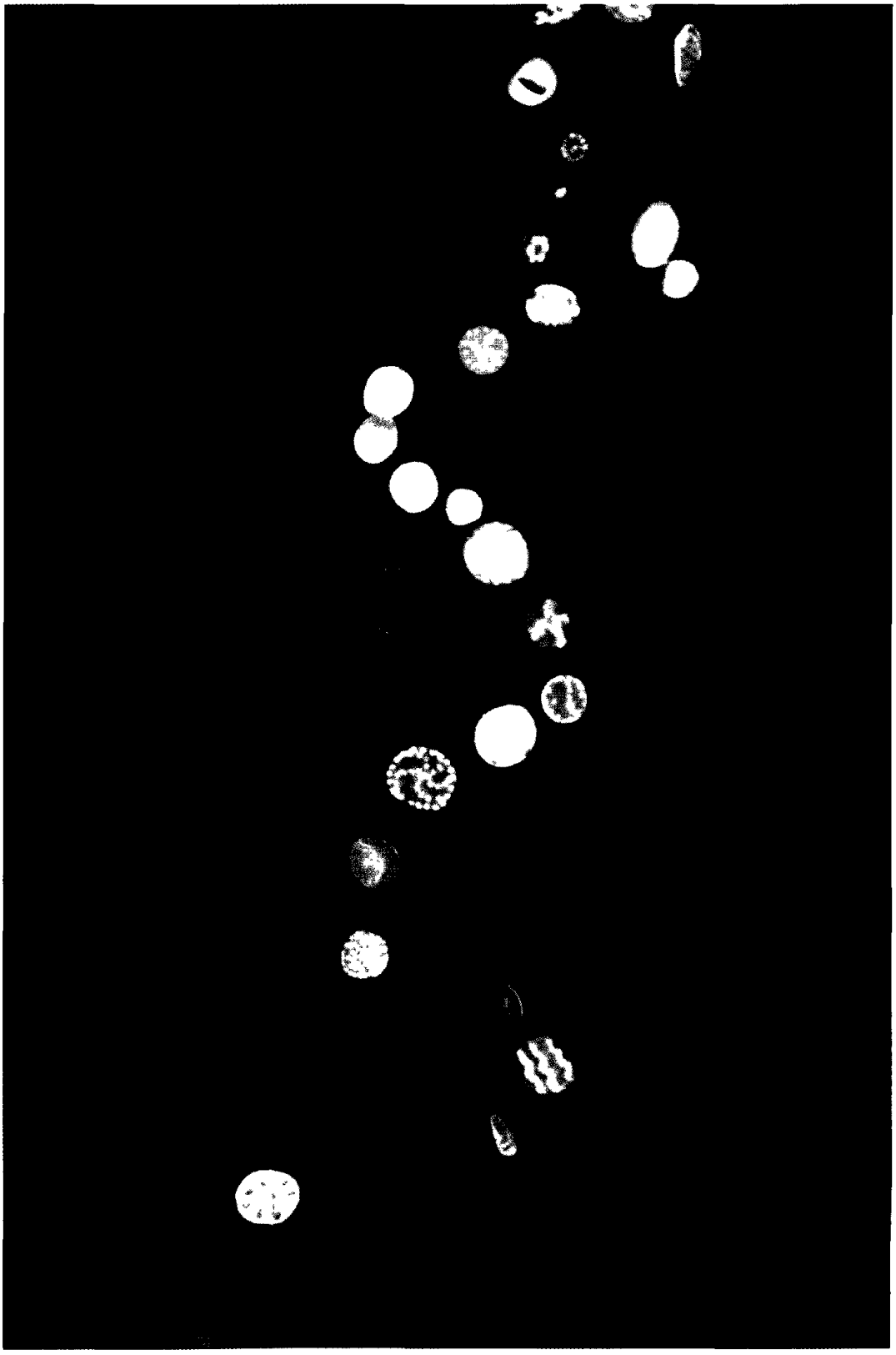
부직포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은 인체에 직접 페인팅하는 것보다 입체적이고 형태변화가 자유로운 특징이 있다.

또한 부직포는 가볍기 때문에 인체용 접착제로 쉽게 붙일 수 있고 양면테이프를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다. 오브제 : 부직포, 철사



라. 작품 V



<작품 V> 부직포를 응용한 작품

6) 작품 Ⅵ

가. 주제 : 털실을 응용한 작품표현 연구

나. 작품설명

작품 Ⅵ은 거미줄의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털실을 오브제로 응용한 작품이다. 거미줄의 복잡하고 불규칙한 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철사를 이용해 축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 털실을 불규칙적인 간격으로 거미줄을 만들어 조형적인 이미지를 높이려 하였다.

털실과 함께 글루건을 이용해 미세한 거미줄 효과를 표현하였다. 거미줄은 대형과 소형 두 가지 각각의 크기로 제작되어 대형 사이즈는 사진작업시 뒷배경에 소형은 인체에 낚시줄을 이용하여 부착시켰다.

표현재료로는 에어브러쉬를 이용하여 에어브러쉬용 화이트톤 수성물감으로 분사시켜 주었으며 근육표현은 그레이톤의 수성물감으로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인체에는 거미줄을 브러쉬를 이용하여 직접 그려 주었다.

조형적인 효과를 위해 거미를 검은 컬러의 패브릭과 솜을 이용하여 제작하여 어깨부분에 부착시켜 주었다. 인체에 물감만을 이용하여 표현한 거미줄 작품은 기존에도 시도되었으나 본 연구의 작품에서는 거미줄을 오브제로 응용하여 인체에 부착시켜 줌으로써 입체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다. 오브제 : 털실

라. 작품 Ⅵ

<작품 Ⅵ> 털실을 응용한 작품

7) 작품 Ⅶ

가. 주제 : 스트로우를 응용한 표현기법 연구

나. 작품설명

작품 Ⅶ은 스트로우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으로 미래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불규칙한 길이의 스트로우를 이어 붙여 은색 공업용 물감을 채색하였다. 스트로우는 일상생활에서 구하기 쉽고 길이조절이 가능하며 재질이 가벼워 부착이 용이한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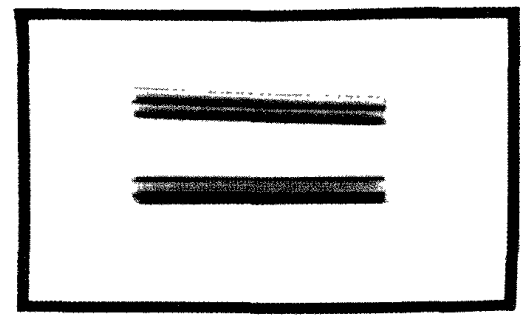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의 작품에서는 미래적인 이미지의 표현을 위한 오브제로 스트로우를 응용하여 부착시켰다.

작품제작은 인체용 수성크림물감을 스폰지와 브러쉬를 사용하여 표현하였으며 미래적인 이미지의 컬러로는 실버를 사용하여 근육의 입체적인 표현을 위해 네이비블루와 블랙크림물감을 이용해 그라데이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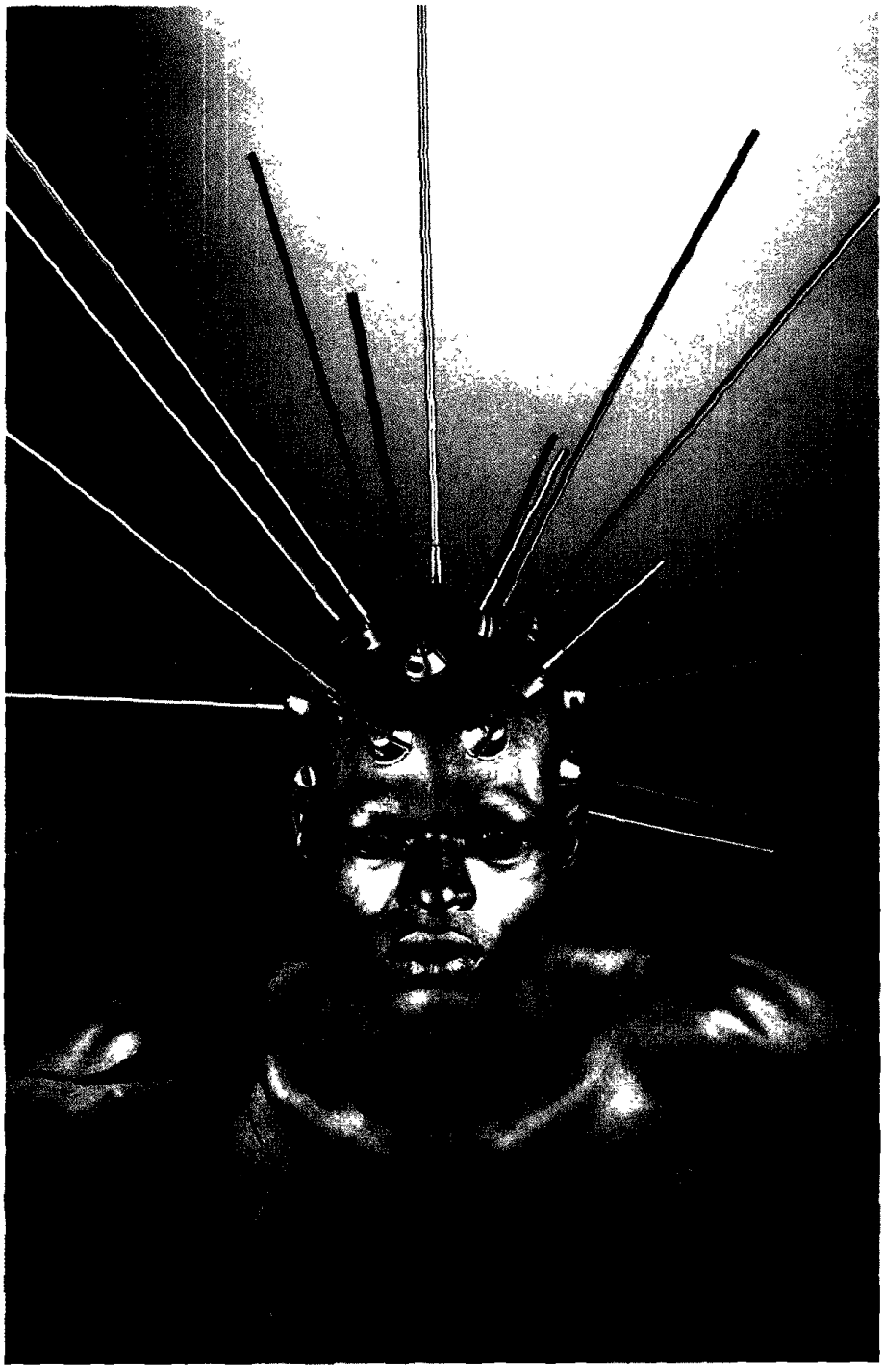
수성크림물감은 크림이라는 재료의 특성상 브러쉬 보다는 스폰지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발색력과 균일한 질감표현에 적합하다.

스트로우는 스프리트껌을 이용하여 머리에 부착하였으며 불규칙한 길이의 스트로우로 시각적인 변화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다. 오브제 : 스트로우



라. 작품 Ⅶ



〈작품 Ⅶ〉 스트로우를 응용한 작품

V. 결 론

인간의 탄생과 함께 발생하여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메이크업의 용도가 미적 본능과 인간의 욕망에서 일어나는 외적 표현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을 거치면서 현대 아트 메이크업은 매우 다양하고 깊이 있는 작품의 세계를 넓혀왔다. 그리고 이 또한 조형문화예술의 하나이기에 다른 문화예술과 다름없이 예술사조의 흐름을 함께 하고 있다.

현대 아트 메이크업의 이러한 성격은 인간의 미의식과 내면세계를 표현하게 되었으며 오브제 개념은 현대 메이크업에 다양한 소재와 조형기법을 도입하는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아트 메이크업에 대한 개념과 오브제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제작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에 표현되고 있는 아트 메이크업은 자기 의식과 개성의 표현을 중시하고 그 표현기법에서도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오브제의 개념은 입체주의 작가들에 의해 표현과 실체를 탐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어 다다이즘에 와서는 기존의 가치나 전통에 대한 부정으로 선택되어 본격화되었으며 초현실주의에 의해 그 영역이 인간의 의식에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팝아트에서는 일상적인 사물을 오브제로 도입하여 예술과 생활과의 거리를 좁혀 나갔으며 계속해서 그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메이크업에서의 오브제는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으며, 아트 메이크업에 의한 새로운 형식에 대한 모색은 메이크업 디자인의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현대 아트 메이크업 작가들에 의해 오브제 작품들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아트 메이크업에 표현된 오브제의 소재는 종이, 깃털, 반짝이, 레이스, 비즈, 머드 등 인체에 사용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재료의 제한이 없이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조형적이고 창의적인 표현효과를 주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소재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며 독특하고 다양한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작품제작을 통해 일상 소재의 다양한 오브제를 아트 메이크업에 응용하여 재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소재개발과 함께 창의적이고 풍부한 디자인을 전개할 수 있었고 아트 메이크업 또한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이해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 아트 메이크업에서 오브제는 다양한 소재로 계속해서 응용되어져야 할 것이며 새로운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메이크업 디자인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아트 메이크업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 관한 서적과 연구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자가 여러 문헌과 인터넷, 서적 등의 자료를 참고로 아트 메이크업에 관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연구 자료가 풍부하지 못함에 따른 자료 제시의 곤란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은 창의력과 독창성을 요구하는 분야이나 본 연구자의 작품만으로는 표현의 한계가 있었으며, 오브제를 아트 메이크업에 폭넓게 응용하여 다양한 작품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응용 소재 및 작품 수에 제한을 가져 그렇게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예술 작품으로서의 아트 메이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작품표현의 확대를 위한 응용소재의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학술적인 이론 또한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제시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김경순 외 3인, 『MAKE UP Ⅱ』, 청구문화사, 2000

김영희 외 6인, 『토탈 메이크업』, 정문각, 2001

김희숙·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1996

박덕흠, 『현대미술의 개념』, 재원, 1990

박보영 외 2인, 『MAKE UP ART』, 청구문화사, 2002

신단주, 『Make up』, 웅진출판, 19995

안연희, 『현대미술사전』, 미진사, 1999

유선태, 『현대섬유미술의 이해』, 미진사, 1995

유송옥 외 2인, 『패션문화사』, 교문사, 1996

이상훈·장병인, 『분장의 세계』, 교문사, 2000

이영애 외 3인, 『뷰티 디자인과 색채학』, 청구문화사, 2000

이영환, 『서양미술사』, 박영사, 1983

전완길, 『한국화장문화사』, 열화당, 1999

천지연, 『FACES IN MAKE UP』, 청구문화사, 2001

한명숙, 『메이크업 디자이너를 위한 마뀌아쥬 예술』, 청구문화사, 1999

Beauty & Health 연구회, 『美 100년사』, 현문사, 2001

학위논문

김명신, 현대 미술에 있어서 오브제의 특징과 개념의 변화, 경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9

김선희, 오브제 개념에 의한 현대 복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김소연,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김희봉, 현대 미술에 있어서 오브제의 유형과 의미,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손성일, Pop art에 나타난 오브제의 특성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정기간행물

누벨 오브제 Ⅰ, 도서출판 디자인 하우스, 1996

누벨 오브제 Ⅱ, 도서출판 디자인 하우스, 1997

누벨 오브제 Ⅲ, 도서출판 디자인 하우스, 2000

한국인체예술학회지 Vol. 1 , 2001

외국문헌

Catherine Ormen Bettian Rheims, Topolino Make-up Games, Assouline, 2002

Karl Gr ning, Decorated Skin, Thames & Hudson, 2001

ABSTRACT

A Study on Expressions of Art Make-up Applying the Object

Kim, Young Sook

Major in Make-up Art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bine art make-up with the object, one of the major currents in the modern art to produce an object-style art make-up, and thereby, review the concept of the object positioned importantly in the history of modern art. Among various areas of make-up, art make-up has served to expand the scope of make-up by introducing various expressions and materials. In this study, the influence of the object over the modern make-up, particularly the art make-up is reviewed together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This study is aimed at suggesting concepts and designs of the art make-up which can be unique by using diverse objects, materials and

techniques. To this end, basic theories about art make-up and object are examined, and thereupon, differentiated make-up design processes for rendering of unique art make-up images are systemized, and thereby, another process of the make-up design applying objects is discussed.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concepts of art make-up and object and producing some art make-up works applying the objects, the following conclusions could be drawn;

First, the art make-up expressed in our modern time tends to emphasize artists' self-consciousness and unique expressions, while many artists endeavor to use various expression techniques.

Second, objects are diversely expressed in make-up. The efforts to explore new styles in art make-up are affecting the make-up design discipline, and thus, modern make-up authors are attempting various object-style works.

Third, it has been found that the objects used for art make-up are very diverse: paper, feather, glitters, race, beads, mud, etc. Thus, art make-up can be more formative and creative expressions. In other words, art make-up authors are departing from the fixed idea of the conventional materials to strike creative ideas for designing unique and differentiated art make-ups

Fourth, it has been found through production of make-up works that ordinary objects can be applied to art make-up to be recomposed in

creative ways for abundant designs and therefore, that make-up can be understood as a genre of plastic art.